



MONTHLY MAGAZINE
VOL. 404. 2012.02



08 | World-Wide Vision
열정의 새, 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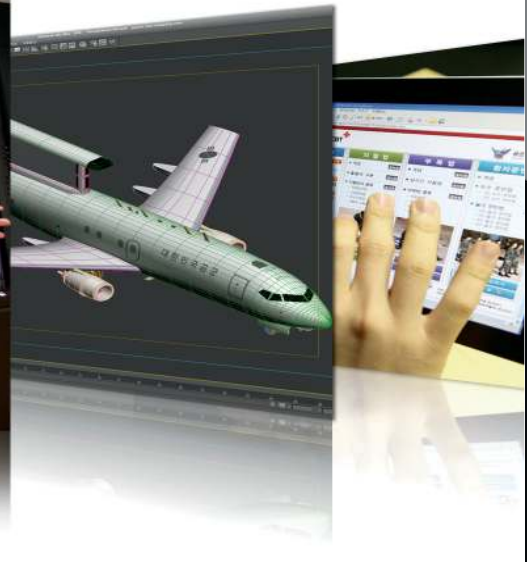
18 | 기획특집
더 똑똑한 공군

42 | Hollywood English
흑성탈출 : 진화의 시작

56 | 책마을
여러분에게 2월의 의미는?

더 똑똑한 공군

Air Force



→ 스마트공군 잠금해제





스마트 준비 중...




GLOBAL & INSIGHT 06 >

 Pioneers up above 휴 트렌차드 06	 World-Wide Vision 열정의 새, 버드 08
 Global AF 엘도라도 협곡 작전 12	 Leadership+ 정확한 진단, 확실한 처방! 16

공군IN 18 >

 기획특집 1 공군학습포털, 내 군생활의 비타민! 18	 기획특집 2 The Smart@AF! 두 마리 토끼를 잡다! 22
 기획특집 3 영어실력 쑥쑥! 자격증은 팍팍! 실무연수 GO!GO! 24	 기획특집 4 공군의 교육정보시스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26
 Photo Sketch 2012 壬辰年 대한민국 공군, 흑룡처럼 비상하라 30	 포토프레임@AF 34
 AIR FORCE MONTHLY 2012. 02. NEWS 36	 생각하는 그림 비버에게 박수를 38

CULTURE 36.5 42 >

 Hollywood English 흑성탈출 : 진화의 시작 42	 인생은 아름다워 비극적인 여왕 디도 이야기 44
 Art in Everyday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46	 Air-Supply 花無十日紅 48
 Preview 2월의 문화행사 50	

OPINION 52 >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12월호를 읽고서 04	 독자기고 鵬程萬里 “앞으로 가야 할 멀고도 먼 길” 외 1 52
 Health Diary 의료방사선의 이해 54	 책마을 여러분에게 2월의 의미는? 56

MONTHLY MAGAZINE VOL. 404, 2012, 02.

발행일자 2012년 1월 31일(통권 제404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손경수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중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와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12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01 월간 「공군」은 바로 **공군**이다. 공군인들의 생각과 지식을 말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특집> '공군인들의 연애를 위한 두 가지 조언'을 가장 재밌게 읽었습니다. 평소 여자 친구가 없음을 한탄하는 저에게 무엇이 부족했고, 이성을 대할 때 어떤 점에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지 알게 해줘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문화면을 더욱 증면해 장병들이 보다 쉽게 「공군」지를 접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충북 청원군, 김문준**

02 월간 「공군」은 **친구**다. 친구처럼 어색함 없이 친근하게 공군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너무 좋습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친구지만, 그만큼 반가움이 크네요! 제 군생활의 재미와 영양기를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특집> '공군인들의 연애를 위한 두 가지 조언'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남·여 입장을 형평성 있게 다뤄 잘 몰랐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풀어준 것 같습니다. 남은 군 생활 동안 나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아주세요! - **서울 서초구, 차명제**

03 월간 「공군」은 **검소**이다. 생뚱맞은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느라 열심히 일하는 공군의 모습 속에서 무한한 검소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공군!! 이번 호에서는 <기획특집> '공군장병들의 따뜻한 이웃사랑 이야기'를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요즘 군대에 대해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은데 모처럼 이런 훈훈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공군장병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어 더욱 훈훈한 12월이었습니다. - **대전 서구, 박대진**

04 월간 「공군」은 **첫눈**이다. 군인의 입장에서는 눈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첫눈이 오지 않으면 절로 기다려지게 되지요. 월간 「공군」도 제게 있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입대 전 대학교 동아리에서 뮤지컬 '렌트'를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렌트가 푸치니의 오페라를 원작으로 했다던데 그게 바로 12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소개된 '라보엠'이었던군요. 한 번쯤 알고 싶었는데 「공군」지에서 볼 수 있어서 더 반갑고 좋았습니다. - **충북 충주시, 박윤수**

05 월간 「공군」은 **경청**이다. 저는 평소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건 상대방에 대한 가장 큰 신뢰의 표시이며, 가장 훌륭한 인간적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군」지를 읽을수록 「공군」지는 독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경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특집> '공군장병들의 따뜻한 이웃사랑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 닿더군요. 공군인들의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공군장병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 **부산 금정구, 우주옥**

06 월간 「공군」은 **땀**이다. 12월 「공군」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엄마 독자입니다. 먼저 공군인들에게 늘 좋은 친구가 돼주는 「공군」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무엇이든지 결과물을 낸다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더군요. 현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땀'이 만들어내는 성과 같습니다. 월간 「공군」 편집진의 그런 땀들이 공군과 독자 간의 교류와 애정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군인들의 공감을 더 많이 이끌어내길 기원합니다. - **전북 익산시, 김정순**



Global & Insight

Pioneers up above 휴 트렌차드

World-Wide Vision Bird of Spirit 열정의 새, 버드

Global AF 엘도라도 협곡 작전

Leadership+ 정확한 진단, 확실한 처방!



휴 트렌차드

Hugh
Trenchard
(1873.2.3~1956.2.10)

영국 공군창설의 주역으로 초대 공군참모총장 역임.
그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온몸으로 겪으며 정리한 **항공력 운용의 4대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항공전략사상의 중요한 기저를 이루고 있다.

1. 공중 통제권(Air Control)을 획득하고 유지할 것.
2. 전략폭격에 의해 적의 생산수단 및 통신시설을 파괴할 것.
3. 적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전투를 유지할 것.
4. 적이 전투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막을 것.

트렌차드 사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전략폭격**이다. 두 차례의 대전을 겪은 트렌차드는 방공임무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았다. 3차원의 광대한 영공을 독일의 공습으로부터 빈틈없이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방공임무에 많은 전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간과 전력을 낭비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판단했다. 그는 **항공력은 지속적으로 공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어는 곧 공격이었다. 나아가 지속적인 공격을 위해서는 초반부터 공중우세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가 전략폭격을 중요시한 이유는 그것이 **적의 전쟁능력과 전쟁의지를 무너뜨리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강력한 전략폭격능력은 **평시에도 국가를 지켜주는 정치적 이점**도 준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트렌차드가 전략폭격을 맹신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전략폭격이 반드시 적법한 국제법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략폭격의 도덕성** 역시 강조하였다.

트렌차드는 1873년 2월 3일, 영국 쏘머셋 탄톤(Somerset Taunton)에서 태어났다. 외조부는 해군대위 출신, 부친은 보병장교로 비교적 군에 친숙한 가문이었다. 이 때문이었을까. 공부보다 스포츠를 좋아했던 트렌차드는 해군을 지원해 두 차례 낙방한 후에야 겨우 육군에 입대했다. 1893년 트렌차드 소위는 인도에 배치돼 이듬해 인도 전군사격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처음으로 명성을 날렸다. 1896년에 그는 폴로게임팀을 조직하는데, 이때 윈스턴 처칠을 만나 교분을 쌓게 된다. 이들은 20년 후, 공군성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으로 재회할 때까지 신뢰를 쌓아갔다. 스포츠에서는 두각을 보인 트렌차드였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는 우둔한 편이어서 별명이 낙타였다.

1910년 아일랜드로 전출된 트렌차드는 그곳에서 비행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12년 트렌차드에게 비행을 권했던 동료 로레인 대위는 그가 비행장에 도착하기 전날 비행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규정은 40세 이전에 조종면장을 받아야 군 조종사가 될 수 있었다. 39세였던 트렌차드는 2주 만에 60분간의 비행훈련을 마치고, 7월 31일 단독비행에 성공, 가까스로 면장을 받았다. 당시 비행교관은 그가 모범적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비행술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기술했다. 비행기량이 우둔한 편이었던 트렌차드는 비행보다는 행정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 기간 동안 트렌차드는 항공기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전략개념을 구상했다.

1차 대전이 발발한 직후 1917년 6월 13일, 독일 공군의 런던공습이 시작되었다. 이때 트렌차드는 서부전선에서 독일의 후방을 공격해 지상에 있는 독일 항공기를 격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런던에 대한 독일의 공습을 중단시키는 방법은 오직 대륙에서 독일항공부대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뿐이라고 하였다. 독일의 런던공습은 육군항공대와 해군항공대를 하나로 통합시켜 공군성과 영국공군을 창설시켜주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독일군의 런던폭격 효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영국 전쟁성 장관 데이비

드 조지는 트렌차드를 런던으로 호출해 독일에 대한 응징폭격계획인 '만하임 폭격'을 주문한다. 육군지휘부는 항공대가 육군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공대를 압박했지만, 수상의 지지를 받는 트렌차드는 독일의 후방도심 폭격을 밀어붙였다. 1917년 10월 17일, 영국 공군은 처음으로 독일의 민간 버바흐(Burbach) 제철소와 철로를 폭격했고 10월 24일에는 첫 야간 장거리 폭격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영국 정부가 원하던 효과를 가져왔다.

이 공로로 트렌차드는 1918년 새로 창설된 영국공군의 초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다. 하지만 공군성 장관인 로더미어 경과 의견충돌 끝에 결국 사임하게 된다. 당시 로더미어 경은 영국 방공방위를 위해 프랑스전선에서 비행대대 일부를 추가로 철수시키려 했는데, 트렌차드는 이 같은 계획이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독일 폭격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항공기와 잘 훈련된 조종사가 필요한데, 전시 상황 중에는 이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트렌차드의 의견이 채택돼, 로더미어 경은 사임하게 된다.

1918년 6월 15일, 트렌차드는 공군참모총장에 재임명된다. 그는 독일의 비행장, 철로 및 산업중심지 등을 폭격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미국 조종사들에게 비행술을 가르치고 프랑스 공군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였다. 1918년 연합군 공군이 구성되었을 때 트렌차드는 만장일치로 연합공군총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1차 대전 직후, 트렌차드는 공군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음을 인식하고는 최선을 다해 참모총장직을 수행했다. 군에 엄청난 감축바람이 불어오자, 군 지휘부는 공군을 육군에 편입시키려 했다. 이때 트렌차드는 **공중 통제(Air Control)**라는 개념을 고안해 **'평시에 있어서 공군력은 어느 군보다 가장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이 된다.'**며 이에 맞섰다. 또한 트렌차드는 공군 고유의 계급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육군지휘부를 당혹케 했고, 공군 독립을 추진했다. 그 밖에 해군항공대를 공군에 흡수 편입하면서 해군참모총장 비티 제독의 화를 돋우기도 했다.

트렌차드는 1925년 옥스포드, 캠브리지 및 런던 대학에 공군학사장교단을 설치하여 항공력 저변확대에도 진력했으며, 어려운 예산압박 하에서도 수상항공기 Supermarine S6를 확보하였다. 1927년 트렌차드는 대장으로 승진하면서 공군 참모총장직을 사임하였지만 반려되었고, 1930년에서야 재가되었다. 그는 윌프톤 남작 작위를 받았다.

남다른 열정으로 1, 2차 세계대전의 격변기를 헤쳐왔던 영국공군의 아버지 휴 트렌차드는 1956년 2월 10일, 런던에서 83세를 일기로 영면하여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다. **AF**

Bird of Spirit

열정의 새, 버드



버드가 미식축구 게임을 관람하고 있다.

Academy mascot ramps up enthusiasm at Falcons Stadium 미 공군사관학교의 마스코트인 버드, 팔콘스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다.

가을철 미 대학의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가 열리는 토요일 경기시작 1시간 전, 미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의 팔콘스 (Falcons) 풋볼 스타디움,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은 밝은 청색의 복장에, 비정상적으로 큰 발, 그리고 노란색 부리를 가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 녀석이다.

버드(The Bird)라고 불리는 미 공사의 마스코트는, 온갖 응원용 분장과 복장을 한 열광적인 팬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이

공사의 마스코트인 버드와 사진을 찍거나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어 한다.

“쿨한 버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도 쿨한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1학년 생도인 브렌든 마에스타스(Brendan Maestas)가 테일게이트¹⁾(tailgate) 텐트로 향하는 생도전용 입구에서 경기장을 찾는 관중에게 외친다.

1) 경기시작 전 팬들이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게임을 즐기는 문화



버드가 치어리더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

버드는 경기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공사 치어리더, 드럼과 뷰글(군악나팔) 밴드와 함께 응원에 박차를 가한다.

“버드를 할 때, 제 가장 큰 목표는 최대한 미친 사람처럼 광적인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2학년 벤 데산(Ben Deschane) 생도가 말했다. “경기 중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 게임이 끝날 때에는 어떠한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경기시간이 다가올수록 버드는 화려한 응원은 물론, 사진을 찍기 원하는 팬들 덕분에 분주히 움직인다. 버드는 경기장 전체를 누비며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사진을 찍기 전 장난스레 팬들의 모자를 뺏어 쓰며, 사기를 돋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팬들을 웃긴다.

1학년 데이브 앤더슨(Dave Anderson) 생도가 버드팀의 단장을 맡고 있으며, 그들은 경기시작 전 남쪽에 있는 대기실 ‘둥지’ (Bird Nest)에서 행사를 준비한다.

언제나 라이벌매치는 팬들이 열광하기 마련이다. 특히 매년 가을에 열리는 공사 대 육사 미식축구 경기가 그렇다. 올해 경기는 버드에게 있어서도 천국과 지옥을 맛보게 해준 경기였다. 손에 땀을 쥐는 뜨거운 명승부였기 때문이다.

데산 생도는 공사가 14 대 0으로 끌려가던 경기 전반까지 버드를 하고 있었다. 게임이 공사에 불리해지자 경기장을 찾은 8만 명의 팬도 그다지 열띤 응원을 하지 않았다.

“우리의 역할은 관중들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데산 생도가 말했다. “팬들이 열광을 하면, 우리도 절로 힘이 나게 되지요. 선수들이 선전을 하면 정말이지 흥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식시간에는 경기장으로 나가 앞돌기, 옆돌기, 말타기 등 즉흥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제가 재주를 부릴수록 팬들이 더욱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14 대 0으로 지고 있을 땐, 관중들은 아무도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도중, 버드는 치어리더와 마이크 담당인 1학년 브라이언 스티걸(Bryan Stigall) 생도와 함께 사이드라인에서 대기한다. 버드는 팔 동작으로 응원호를 만들고, 점프를 해가며, 팬들을 열광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한다. 공사가 점수를 내면, 생도들과 함께 엔드 존(end zone)으로 달려가서 학교의 전통대로 점수에 해당하는 횡수만큼 팔굽혀펴기를 한다. 안타깝게도 전반전에는 공사의 공격이 미진해 데산(Deschane) 생도는 “특별체력단련”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미 공사 팀이 터치다운으로 점수를 내자, 생도들과 버드가 환호하고 있다.



버드가 미 합참의장인 마틴 뎀시 대장의 모자를 뺏어 쓰고 너스레를 떠는 모습

다행히도 팬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으로 인해 3쿼터에 행운의 여신은 공사와 버드에 미소를 보내기 시작했다. 공사는 상대방의 실책 유도에 이은 2개의 터치다운과 몇 차례의 필드골을 성공시켜 24점을 연달아 획득했다.

“팀이 지고 있는 상태에서 후반전이 시작했을 때는 정말 입이 바짝 마르더라고요.” 후반전에 버드를 맡고 있었던 3학년 생도 카일 프레이링(Kyle Frayling)이 말했다. “저희 버드는 치어리더들과 관중들의 에너지를 돌리기 위한 존재입니다. 저는 후반전 들어 팀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에 최선을 다했고, 팀이 살아나기 시작하자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띄우기 위해 노력했지요. 관중들이 다시 환호하기 시작하자, 저 역시 더욱 열심히 응원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은 전반전과 180도 다른 상황이었지요.”

프레이링 생도는 공사가 마지막 4쿼터를 승리로 장식했을 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프레이링 생도는 공사 교장인 마이클 고우드(Michael C. Gould) 중장과 함께 있는 합참의장 마틴 뎀시(Martin E. Dempsey) 대장을 보았을 때,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 단지 버드가 지휘관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이 재밌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마틴 뎀시 대장과 악수를 하면서 장난으로 뎀시 대장의 모자를 뺏어 썼던 것이다.



“그분이 4성 장군님이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누구신지는 잘 몰랐 습니다.” 프레일링 생도가 말했다. “그런 연유로 저는 모자를 뺏어 썼고, 다행히 옆에 있던 보좌관이 즉시 다른 모자를 꺼내 주더군요. 정말 심년감수했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응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 람들이 버드를 보고 더욱 열광하면, 저 역시 더욱 열광하게 되죠.”

경기종료를 알리는 벨이 들려오자, 팔콘스 경기장의 모든 에너지는 경기 장 중앙으로 모였다. 팬들은 기쁨에 넘쳐 관중석에서 경기장으로 연신 쏟아져 나 왔으며 공사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 한가운데에 버드가 있었다. 관중들은 버드의 이름을 높이 외쳤고, 버드가 보일 때마다 친근함의 표시로 버드를 한 번씩 때려 가며(?) 다독여주었다.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프레일링 생도가 말했다. “머리를 하도 많 이 맞아, 뇌진탕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열광하며 버드를 외치고 있었을 때 그 기분이란... 최고였습니다.”

모든 공군인들에게 오늘은 버드와 함께한 정말 꿀한 하루였다. **AF**



버드가 경기 시작 전, 테일게이트 파티에 참여해 팬들의 흥을 돋우고 있다.



미 공사 팀이 경기 중 터치다운을 기록하자, 생도들이 버드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

◀▼미 공사 생도들이 미 육사와의 경기에서 24 대 14로 승리한 후, 경기장으로 달려나와 축하하는 모습





01
미국은 리비아를 주요 테러 국가로 지목
했고 레이건 미 대통령은 카다피를 '중동의
미친 개'라고 불렀다.

테러와의 전쟁, 리비아 항공전 (1)

일도라도 협곡작전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미국방부 청사에 항공기 동시다발 자살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9·11이라고 부르는 이 날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지금까지 테러의 공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1980년대에도 크고 작은 테러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었다. 오늘날 대표적인 테러리스트를 꼽자면 지난 2011년 5월 2일 미 특수부대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카다피가 대표적인 테러리스트로 손꼽혔다.

02

리비아 공군의 Su-22 전폭기는 F-14 전투기를 향해 AA-2 아톨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



중동의 미친 개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카다피는 1969년 육군 대령으로 복무 중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왕정을 폐지하고 1970년 리비아의 국가 원수와 국가평의회 의장 그리고 국방장관을 겸직하며, 리비아의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철저히 반미주의와 반서방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를 강조하며, 외국의 석유 회사들을 추방하고 리비아의 중요 수출 품목인 석유를 국유화했다. 또한 도로와 해운, 항만, 항공들의 주요 기반시설도 국유화와 국영화로 전환시켰다. 카다피의 반미주의와 반서방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다. 매년 8,000여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리비아에서 훈련을 받았고, 테러리스트들은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리비아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 유럽으로 잠입했다. 또한 리비아는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들에게 100만 달러를 제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지원했다. 1980년대 들어서 미국은 리비아를 주요 테러 국가로 지목했고, 1981년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은 카다피를 '중동의 미친 개'라고 불렀다.

제1차 시드라 만 교전

1980년 9월, 리비아는 리비아를 정찰하던 미 공군 소속의 RC-135 정찰기에 대해 미그(MiG) 23 전투기와 미라주(Mirage) F-1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를 시도한다. 미 해군 소속의 F-4 전투기가 동원되어 가까스로 격추 시도를 좌절시켰지만, 이는 리비아가 미국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이후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무력시위로 리비아의 영해 근처에서 해상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포레스탈 항모전단과 니미츠 항모전단이 동원되었다. 1981년 8월 18일, 시드라 만 인근 해역에 도착한 미 해군 항모전단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리비아는 미그 25 전투기를 출격시켜, 미 해군 항모전단을 위협했다. 이날 하루 리비아는 미그 25 전투기 외에도 각종 전투기 30여 대를 출격시켜 미 해군 항모전단에 접근했다. 이에 대응해 미 해군 항모전단에서는 F-14와 F-4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F-14 vs Su-22

다음 날인 1981년 8월 19일, 오전 트리폴리 인근 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리비아 공군 소속의 Su-22 전폭기 2대가 빠른 속도로 미 해군 항모전단에 접근했다. 리비아 전투기들을 감시하던 E-2C 공중조기경보기는 상공에 대기 중인 F-14 전투기에 대응을 지시한다. 결국 Su-22 전폭기와 F-14 전투기는 조우하게 되고, 리비아 공군의 Su-22 전폭기는 F-14 전투기를 향해 AA-2 아톨(Atoll)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 갑작스런 공격에 F-14 전투기는 회피 기동에 들어가게 되고 구형 미사일이었던 AA-2 아톨 공대공 미사일은, 목표물을 놓치고 공중에서 자동폭파되었다. 반격에 나선 F-14 전투기들은 AIM-9L 사이드와인더(Sidewinder)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은 Su-22 전폭기 2대를 격추시켰다. 이 교전을 계기로 미국과 리비아 간의 추가적인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고, 해상 군사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03



04



05

03 갑작스런 공격에 F-14 전투기들은 AIM-9L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Su-22 전폭기 2대를 격추시켰다.

04 제2차 시드라 만 교전에서 리비아 군 방공망을 공격한 미 해군의 F/A-18 A/B 호넷 전투기

05 레이건 미 대통령은 테러 사건의 배후가 리비아로 밝혀지자 '보복 작전을 계획하라'고 군에 명령한다.

제2차 시드라 만 교전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한 번 미국과 리비아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1986년 1월, 리비아가 북위 32도 30분 이남의 시드라(Sidra) 만¹⁾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시드라 만을 자국의 영해라고 선언했다. 또한 일종의 경계선을 설정하여, 그 선을 죽음의 경계선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 자국 해안으로부터 12해리²⁾ 이내가 영해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비아의 갑작스런 행동은 미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986년 3월 24일, 미 해군은 3척의 항모전단을 시드라 만에 파견해 대규모 해상기동 훈련을 실시했고, 리비아와의 교전 상황이 다시 발생했다. 당시 미 해군의 피해는 전무했으나, 리비아는 리비아 군의 레이더 시설과 지대공 미사일 진지 그리고 다수의 해군 함정이 격침 또는 손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베를린 디스코텍에서 벌어진 폭탄테러

3월 27일 이후, 미 해군 항모전단은 훈련을 단축해 시드라 만에서 철수했다. 이에 미국과 리비아의 대결은 다시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4월 2일, 미국의 트랜스월드항공(Trans World Airlines) 소속의 840 항공편이 아테네 부근을 비행 중, 기내에서 폭탄이 폭발하여 4명의 미국인이 사망한다. 뒤이어 4월 5일, 독일 베를린의 라벨라 디스코텍에서 폭탄이 터져, 미군 2명이 사망하고 미국인 79명이 부상을 당한다. 사건 발생 후 리비아를 의심하던 미국은 무선도청을 통해 두 건의 테러에 리비아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낸다. 결국 레이건 미 대통령은 '보복 작전을 계획하라'고 군에 명령한다. 이에 따라 미 공군과 해군은 대리비아 공습 작전인 엘도라도³⁾ 협곡작전을 계획하게 된다.

고스트 라이더 작전

이보다 앞서 미 공군은 고스트 라이더(Ghost Rider) 작전을 통해, 리비아 공습작전의 가능성을 실험해왔다. 1985년 10월 16일, 영국 업퍼 헤이포드(Upper Heyford)에 기지를 둔 제20전술전투비행단 소속의 F-111E 전폭기 10대는 8발의 500파운드 훈련탄을 각각 장착하고 활주로를 이륙했다. F-111E 전폭기들은 장시간의 비행 끝에 3,800km 떨어진 캐나다 남부의 뉴펀들랜드(Newfoundland)주, 구즈 베이(Goose Bay)에 위치한 목표물에 훈련탄을 투하했다. 장거리 공습에 대비한 모의 훈련이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후 미 공군은 리비아 공습에 대비해 영국 레이큰히스(Lakenheath)에 주둔 중인 제48전술전투비행단의 기종을 최신형 전폭기인 F-111F로 전환했다.



06 엘도라도 협곡 작전 당시 영국 레이큰히스에서 출격을 준비 중인 F-111F 전폭기들

07 F-111F 전폭기와 EF-111A 전자전기는 10,000km에 달하는 여정을 비행해야 했다.

08 일반 폭탄을 장착한 F-111F 전폭기들은 리비아 군의 공군기지를 공습했다.

09 F-111F 전폭기들은 트리폴리 주변의 테러리스트 훈련소와 리비아 정부 건물을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정확하게 공습했다.

1) 리비아의 지중해에 있는 만. 면적 약 440km². 시르테 만이라고도 한다.

2) 약 22km

3)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강변에 있다고 상상된 황금의 나라

미 공군과 해군의 협동작전

엘도라도 협곡 작전은 테러리스트 훈련소와 테러리스트와 연관된 리비아 정보부 그리고 공군 기지와 병영 등 총 5곳을 주요 공습 목표로 정했다. 수도 트리폴리 주변의 3곳의 목표물은 미 공군이 공습하고, 제2의 수도 뱅가지 주변의 2곳의 목표물은 미 해군이 공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4월 14일 그리니치 표준시 오후 5시 36분, 영국 레이큰히스에서 미 공군 제48전술전투비행단 소속의 F-111F 전폭기 24대가 리비아를 향해 출격했다. 이와 함께 업퍼 헤이포드에서도 미 공군 제20전술전투비행단 소속의 EF-111A 전자전기 5대가 F-111F 전폭기들의 공습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이륙했다. 출발은 순조로웠지만, 이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전광석화(電光石火)!!!

이륙한 지 90분 후, 첫 번째 공중급유에서 6대의 F-111F 전폭기와 1대의 EF-111A 전자전기가 기체 이상으로 기지로 귀환했다. 또한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들의 영공 통과를 거부하면서, 결국 대서양을 중단하고 지브롤터 해협⁴⁾을 통과해 지중해로 진입해야 했다. 이에 F-111F 전폭기와 EF-111A 전자전기는 10,000km에 달하는 거리를 비행해야 했고, 12번의 공중급유를 받아 리비아에 도착할 수 있었다. 4월 15일 새벽 2시, 리비아에 진입한 F-111F 전폭기와 EF-111A 전자전기는 각자의 목표물을 향해 흩어졌다. 동시에 미 해군 소속의 A-7E 공격기는 트리폴리 인근의 리비아 방공망을 공격해, 미 공군의 F-111F 전폭기와 EF-111A 전자전기를 지원했다. 레이저 유도 폭탄을 장착한 F-111F 전폭기들은 트리폴리 주변의 테러리스트 훈련소와 리비아 정보부 건물을 오차 없이 정확히 공습했다. 반면, 일반 폭탄을 장착한 F-111F 전폭기들은 리비아 군의 공군기지를 공습했다. 10분여 간 진행된 전광석화와 같은 공습에, 뒤늦은 공습경보 사이렌만이 허공에 울렸다. 같은 시각, 미 해군 공격기들은 뱅가지 주변의 목표물을 공습했다.

엘도라도 협곡 작전의 의미

리비아 군은 강력한 방공망을 자랑했지만, 미군의 강력한 전자전 능력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습 과정에서 F-111F 전폭기 1대가 리비아 군 방공망에 격추돼 조종사와 무장 조종사가 사망했다. 미군의 공습으로 리비아 측이 입은 피해는 상당했다. 7대뿐인 국제선용 여객기 중 4대가 파괴되었고, 리비아 군의 헬기와 수송기 16대가 파괴됐다. 그리고 방공진지 16개소와 병영 6개동, 공군기지 2곳이 파괴됐다. 리비아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37명이 사망하고, 9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습 직후, 레이건 미 대통령은 텔레비전 담화를 통해 리비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공격할 것이다.” 엘도라도 협곡 작전은 테러와의 전쟁에 항공력이 새로운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작전이었다. 특히 장거리 전폭기와 정밀 유도 무기가 결합된, 외과 수술과 같은 폭격은 항공 전사에 새로운 신기원을 열었다. AF

10

F-111F 전폭기에 장착된 페이브 텍 목표지시 장치에 조종된 리비아군의 수송기들.

4) 지중해와 대서양의 접점으로, 그 양편에는 유럽대륙의 서쪽 끝 스페인과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 끝 모로코가 있다.

LEADERSHIP



21세기 기업 경영에서 '인재가 만사'임을 확신하고,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5년 이상 현지경험을 쌓은 서너 명을 임원으로 영입한 어느 사장의 이야기다.

'막대한 스카우트 비용과 이사 비용 등을 써서 데려왔는데 1, 2년도 안 돼 모두들 다른 회사로 떠나 버린다.'며 코칭을 받으러 온 CEO가 있었다. 급여와 인센티브를 올려 주면 그 때뿐 얼마간 지나면 결국 떠나고 만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나'고 물으면 대부분 보상이 충분치 않아서, 배우자가 한국생활을 싫어해서, 아이들 학교문제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해서 등등 많은 항목들을 나열한다는 것이다. 그것들 가운데 가장 쉽게 해결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모두가 보상을 얘기한다. 실제로 보상을 많이 인상해 주면 반년은 남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답답해한다.

그렇다고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워싱턴의 포토맥 강변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이 관광명소가 비둘기들 문제로 크게 골치를 앓은 적이 있었다.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 천장에 비둘기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며 배설물을 바닥이나 관광객들에게 쏟아 내는 바람에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었다. 담당자들은 오랜 회의 끝에 그 이유가 관광객들이 던져 준 모이 때문임을 단정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모이를 완전히 없앴다. 그러나 비둘기들은 떠나가지 않았다. 결국 천장 밑에 비둘기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물망으로 인해 해치게 될 건물의 미관이었다.

결국 비둘기 전문가와 생물학자를 찾게 되었는데 그들의 연구 결과는 의외였다. 비둘기가 기념관에 많이 모여든 것은 천장에 있는



수많은 거미 떼를 잡아먹기 위함이었다. 또 천장에 거미 떼가 많은 이유는 해질 무렵에 주변의 나방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며, 나방이 많이 모여드는 이유는 다른 건물보다 1~2시간 전에 켜진 불빛 때문이었다. 결국 나방이 없으면 거미도 없을 것이고 거미들이 없으면 비둘기도 서식할 이유가 없었다. 원래 야행성인 나방은 해질 무렵에 그 기념관의 불빛을 보고 달려들기에 전등을 다른 건물보다 늦게 켜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원인의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미관상의 문제를 무릅쓰고 거액의 비용을 들여 그물을 쳤을 것이다. 또 그것은 문제 해결의 좋은 사례로 홍보되었을 것이고 비슷한 장소들에 그물망이 쳐졌을 것이다. 우리의 주변에는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고 접근 방법도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 나는 해외파 임원의 이직으로 고민하는 사장에게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도록 조언하였다. 그가 쉽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기에 몇 달 동안의 기간을 주었지만 예상대로 해내지 못했다. 이유인즉슨 원인의 실체가 사장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장은 감정적 보상보다는 금전적 보상이 중요하고, 은은히 몸으로 퍼지는 포도주보다는 환관하게 기분을 풀어줄 거라고 믿는 폭탄주에 의존하는 타입이었으며, 역시 한국 회사는 권위적으로 경영해야 된다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신세대와는 코드가 잘 통하지 않을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다. 문제의 실체를 파악한 그 사장은 당황하고 불안해했다. 그는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리더십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당장에 큰 효과가 안 나오자 이어서 코칭도 받았다. 그의 회사가 변모해 갈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크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은 걸리지만 변신이 성공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현상을 문제 삼으면 끝이 없고 조직의 사기는 떨어진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대화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자. 그리고 각종 교육과 조언을 통해 진짜 변화의 포인트를 잡아 실행해 나가자. 조직원에게 답이 있다. 자각할 수 있는 에너지와 집중력만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답이 있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공군학습포털, 내 군생활의 비타민!
The Smart@AF!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영어실력 쑥쑥! 자격증은 팍팍! 실무연수 GO!GO!
공군의 교육정보시스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Photo Sketch 2012 壬辰年 대한민국 공군, 흑룡처럼 비상하라

포토프레임@AF 제1회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외

AIR FORCE MONTHLY 2012. 02. NEWS

생각하는 그림 비버에게 박수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9:25 오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9:26 오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9:20 오전

9:16 오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9:15 오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9:16 오전

9:16 오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9:16 오전

9:16 오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① 이름이 뭐예요?

▶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반을 마련하다.

하늘이
공군학습포털은 상시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공군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야. '강하고 믿음직한 선진 공군인'을 육성하기 위해 공군의 모든 지식을 e-HRD¹⁾ 시스템(학습포털)을 통해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지.

오전 9:30

마치 공군의 모든 지식을 담은 '백과사전' 같군요!

오전 9:32

그렇지. 공군백과사전이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영공방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해서 습득해야만 해. 따라서 '교육'은 공군에게 늘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지.

오전 9:40

덧붙여 지식정보화 시대는 전통적 교육시스템에 혁신을 일으켰어. 이전까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인력운영 등의 이유로 교육받기를 꺼려했던 것도 사실이거든.

오전 9:40

그래서 예하부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교육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공군학습포털'이야.

오전 9:50

국방부에서도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과제로 디지털 원격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미 공군의 경우 EAGLE이라는 학습포털을 통해 인공위성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오전 9:52

그럼 우리 공군도 이제 세계 속의 공군이 되는거군요!!

오전 9:55

▶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공군학습포털

하늘이
하늘아. 한 번 학창시절을 생각해볼래? 너는 어떻게 수업을 받았니?

오전 10:00

수업시간에 맞춰 학교에 가, 선생님들께 수업을 들었죠. 뭐... 교관님이나 저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 10:01

그래. 이제까지의 교육형태는 초등, 중등 심지어 고등교육까지 별 차이가 없었어. 또한 시간과 장소, 교수자의 능력에 따라 학습자의 학업성취도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지.

오전 10:02

그러나 공군학습포털은 꼭 필요한 집체, 소집교육이 아닌 이상, 공군인이라면 누구나 일원화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마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셈이지.

오전 10:02

또한 공군학습포털은 웹 기반의 '인재육성시스템'이기 때문에 비행단 대대 차원의 지식과 업무노하우를 전 공군차원으로 확대해 공군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특기분야의 요구를 반영한 학습 콘텐츠를 자체인력으로 직접 제작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발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이는 보안에도 도움이 되지.

오전 10:03

돈도 아끼고, 보안도 보장하고. 정말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ㅋㅋㅋ

오전 10:04

1) e-HRD : electronic-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약자로 웹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총칭한다.

▶ 공군학습포털의 구성체계



오전 10:05 그럼, 다음은 공군학습포털의 구성체계에 대해 설명해 볼까?

먼저 학교교육체계!
 이곳에서는 공군학교교육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야. 특히 이
 러닝과정운영과 학습콘텐츠를 통합관리하는 공군학습포털의 핵심체계라
 할 수 있지.

다음은 직무교육체계!
 선배들이 하늘이에게 얘기했던 곳이 여기야~ 앞으로 하늘이가 자주 방문하게
 될 곳이기도 하고. 이 곳에서는 공군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지식과 보
 직/특기별 알아야 할 업무노하우를 공부할 수 있단다. 😊

오전 10:10 🙄🙄🙄

오전 10:12 하늘이~ 표정이 안 좋네~???

오전 10:12 아...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기뻐서 그렇습니다!

오전 10:13 그렇지 하늘아? ㅋㅋㅋㅋㅋ 앞으로 자주 봐야 한다??

오전 10:13 예....

그리고 지식관리(하늘샘)체계!
 여기는 공군판 '지식IN!' 이라고 할 수 있단다. 개인과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공군전체가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야. 또한 가장 많은
 지식을 제공한 공군인을 선정해 시상하니까 하늘이도 나중에 도전해 보렴!

다음으로 군사학체계!
 우리 공군이 아무리 첨단공군이라도 **근본은 군인**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 곳에서는 항공력이론과 교리, 공군력의 전략적 운용 등의 군사이론을
 학습할 수 있단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곳에서 항공력이론과 교리를 재미있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지ㅎㅎ

+ 😊 전송



마지막으로 자기계발체계!

아마도 하늘이가 가장 기대하는 곳이 아닐까 싶다.

오전 10:17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ㅋㅋㅋ

오전 10:19

오이구~!! 여기서는 ybm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군사영어부터, 토익, 218여 개에 이르는 국가기술자격검증, 리더십 강의 등의 학습 자료를 무료로 공부할 수 있으니 열심히 이용해봐. 그렇다고 업무시간에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오전 10:20



물론이죠! 여가시간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21

오전 10:21

그래. 이 정도면 공군학습포털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된 것 같구나. 이해는 잘 됐니?



음. ㅋㅋ 그래도 처음보다는 공군학습포털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전 10:21

오전 10:22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는 속담처럼,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체험을 하는 쪽이 훨씬 좋지.

처음 시작은 낯설지도 몰라. 그런데 공군학습포털에 들어와 하나, 둘씩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다보면, 어느새 쑥쑥 성장한 하늘이 이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테니 열심히 하길 바란다. 하늘이 이병 잘 할 수 있지?

오전 10:23



물론이죠. 교관님! 안 그래도 지금 당장 공군학습포털부터 즐겨찾기 하려고 합니다.

오전 10:23



솔직히 입대하기 전에는 군 생활이 낭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주변 예비역 형들도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관님의 설명을 들으니, 공군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군학습포털이 제 군 생활 동안 많은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전 10:24

오전 10:25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앞으로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또 물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교관님. 감사합니다! 필~승!

오전 10:25



전송



더 특별한 공군! ②

직무능력 + 자기계발

The Smart@AF!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이제는 군 생활이 낭비라는 편견은 버려라! 공군이 제공하는 교육체계로 직무능력과 자기계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공군인들을 만나봅니다.



- 공통 질문 -

1. 자기소개
2. 자격증 도전 이유
3. 공군교육체계의 도움 여부
4. 하고 싶은 말



1 반갑습니다. 저는 제18전투비행단 제작중대 기계반에서 기계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석 중사입니다.

2 아무 생각 없이 정비하고 싶지 않았습니

다. 제 직무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거든요. 처음 용접반장을 맡았을 때, 반장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장 취득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 자격증 도전의 첫 시작이었죠. 그 이후,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 둘씩 취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직무능력도 향상되었고, 후배들에게 나름 자국제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그는 18비에 자격증 취득 열풍을 불러온 주인공으로 현재 용접 기능장과 금속제조 기능장을 취득했으며, 이 외에 항공장비정비 기능사, 비파괴 검사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능사, 특수용접 기능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그리고 항공기 기관 기능사 등을 취득했다.)

3 매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교육사령부 기술학교의 교육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사령부 기술학교의 교육 자료들은 초, 중, 고급의 레벨로 나뉘어져 있으며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준비하는 많은 장병이나 군무원들이 애용하고 있죠. 또한 민간학원들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강조하는 반면, 시술학교의 자료는 실무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준비하는데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오늘 내가 맡은 일을 미루지 말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본인의 직책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 직무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자기계발에 훨씬 유리할 겁니다.



1 1전비 화지대 백권위 중사입니다. 현재 방호사로 화생방 정찰 및 제독, 방호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특기가 화학이다 보니, 아무래도 화학분야자격증에 관심이 가더군요. 마침 대학시절 전공도 화학공학이었고요. 그래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취감이 느껴지더군요. 하나, 둘씩 자격증이 쌓이는 걸 보면서 '비로소 내가 화학분야의 전문가가 되었구나!' 라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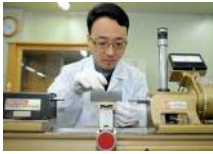
3 물론이죠! 방호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최근 가스기능사를 취득했는데, 공군학습포털 국기검 콘텐츠를 통해 공부했거든요. 저는 공군이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해주다고 생각합니다. 공군학습포털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 콘텐츠와 국기검, 각종 CBT를 잘만 이용해도 금전적 소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효과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4 '노력해서 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이는 드물죠.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음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십시오. 또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사 이창석 | 제18전투비행단 제작중대 기계반 (자격증 9개 취득)

중사 백권위 | 제1전투비행단 화생방지원대 방호반 (자격증 28개 취득)



- 1 군수사령부 85창 김재열 군무원입니다. 현재 85창 6시험소에서 정밀 측정장비 정비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2 임무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제 임무에 대한 일종의 소명의식이라고 할까요.
- 3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전투기 정비는 군수분야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전투기에 대한 직무지식은 필수고,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계발이 필요하죠. 공군교육체계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공군인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바탕을 두고, 그와 연계한 자기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밀측정 고급 3급 과정 이수를 시작으로 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모두 공군의 지원을 받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4 임무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공군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자신의 목표를 좀 더 절실히 꿈꾸십시오. 그러면 누구라도 저보다 더 뛰어난 공군인이 될 것입니다.

6급 김재열 | 군수사령부 85표준창 제6시험소 (자격증 14개 취득)



- 1 제15혼성비행단 정훈공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준오 하사입니다. 정훈공보실에서는 영상홍보 담당을 맡아 각종 행사사진 촬영 및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2 저는 정훈부서관입니다. 사진 및 영상촬영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 자격증에 처음 도전하게 되었죠. 그 덕분에 컴퓨터그래픽(GTQ)분야에서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이뤘다는 기쁨일까요. 그 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다방면에 팔방미인이 되고 싶었기에 여러 분야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보유 자격증 : 그래픽기술자격 1급, 금속도장기능사, 대형운전면허,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제과기능사 등)
- 3 '등산 밑이 어둡다'고, 알고 보면 공군에서 제공하는 각종 학습콘텐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를 잘만 이용한다면 직무능력과 자기계발, 일거양득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4 공군복무는 직무능력과 자기계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주변 전우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AF

하사 지준오 | 제15혼성비행단 정훈공보실 (컴퓨터그래픽(GTQ)분야 국방부장관상 수상, 자격증 8개 취득)

더 똑똑한 공군! ③

영어실력 **쑥쑥!** 자격증은 **탁탁!** 실무연수 **GO!GO!**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 것처럼, 더 똑똑해지고 싶은 사람은 공군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맞춤형 영어서비스 수강방법
공군 홈페이지-> '맞춤형 영어' 클릭
(회원이가입 후, 맞춤형 영어서비스 인증번호 입력)



이제는 우리도 영어 달인! 공군 맞춤형 영어

연간 우리 국민이 영어에 투자하는 교육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무려 1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012년 국방비가 33조원임을 감안하면, 영어에 대한 범국민적인 열풍을 짐작할 만하죠. 우리 공군장병들 중에서도 한미연합사, 관제업무 등 어학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하거나, 국내 실무연수 및 대학원 진학을 위해 틈틈이 영어실력을 쌓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군장병들은 격오지 근무나 교대근무 등 바쁜 임무로 인해 영어학습에 대한



의욕은 높아도, 이를 충족시키기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 연유로 공군본부에서는 공군장병들이 보다 수월하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공군 맞춤형 영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군 맞춤형 영어서비스는 인터넷과 인트라넷으로 동시에 제공됩니다. 간부나 병사 모두 여가시간에 영어공부를 무료로 할 수 있지요. 인터넷 맞춤형 영어서

공군 맞춤형 영어이면 영어 실력도 엄청나게 좋아해~~~~



는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매달 문서를 통해 안내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군사영어 등 총 553여 개의 강좌를 제공합니다. 교육기간은 2개월이며, 과목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강한 과정을 반복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학습과정도 375개나 됩니다.

인터넷 맞춤형 영어서비스와 더불어, 2011년 2월부터는 인트라넷을 통해서도 맞춤형 영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트라넷 맞춤형 영어서비스는 '공군학습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트라넷 맞춤형 영어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318여 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분기별로 강좌를 추가해 2012년 상반기 중에는 인터넷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잠깐 Tip! 올해부터는 성적이 우수한 일정 인원을 매 분기마다 선발해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영어실력도 향상시키고 선물도 받아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트라넷 맞춤형 영어서비스 수강방법
공군학습포털-> '맞춤형 영어' 클릭

군복무 중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보세요! 국가기술자격검정

공군병사 여러분! 전역할 날짜만 짚지 말고, 전역 후에는 무엇을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취업이 어려운 요즘 공군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 취득을 공군에서도 동일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방부 시행 국가기술자격검정입니다.

국가기술자격검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술·기능 정도를 평가, 그 수준을 공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검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일부과목의 시행을 위탁받아 군내에서 시행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은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문제출제 및 합격자관리, 자격증 발급 등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공군에서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공군국가기술자격검정은 필기/실기 동시접수이기 때문에 필기면제대상자도 필기시험 접수기간에 반드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실기시험 최종발표일까지 현역 신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전역을 앞두고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군에서는 정기검정으로 산업기사 17종목과 기능사 45개 종목을 연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검정으로 91전대에서 굴삭기운전기능사 검정을 연간 1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성남, 수원, 원주, 강릉, 청주, 대전, 군산, 예천, 충주, 서산, 진주, 광주, 대구, 부산, 백령도, 제주도 16개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실기시험은 종목에 따라 개별 주관부대에서 시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공군인들은 지금 바로 소속부대 국가기술자격검정 담당자(인사/교육참모)나 종목별 국기검 교관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절차 및 시기
공군 '12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실시종목

구 분	검 정 종 목 (총 62개 종목)
산업기사 (17개 종목)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조립, 방사선비파괴검사, 보일러, 용접, 위험물, 자동차정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전기공사,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판금제관, 항공
기능사 (45개 종목)	가스,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무선설비,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송통신, 배관, 보일러, 사진, 용접, 특수용접, 위험물, 연삭, 열처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기비파괴검사,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침투비파괴검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판금제관,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화학분석, 환경, 항공사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지게차운전
	양식조리, 일식조리, 중식조리, 한식조리

더 많은 배움이 필요할 땐? 국내실무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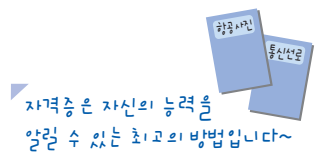
현대사회를 흔히 지식정보화 시대라 합니다. 급속한 기술의 발전이 사회를 하루가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군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공군에서는 사회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고, 자신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픈 공군인들을 위해 국내실무연수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국내실무연수란 직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해, 군외 위탁기관에서 직무연수과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기관은 성격에 따라 크게 정부와 민간기관으로 나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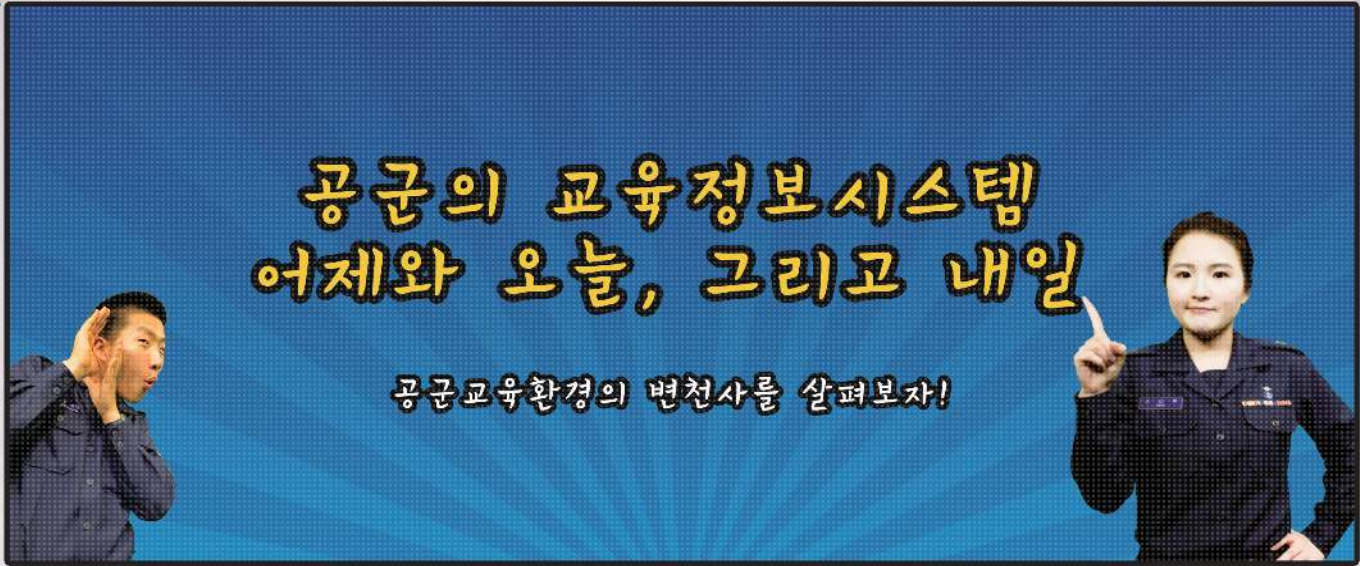
위탁기관	종 류
정부기관	감사교육원, 경찰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조달청, 통계교육원, 국가기록원, 국가정보대학원, 국립국어원, 법무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서울소방학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행안부 정보화교육센터 등
민간기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리더십센터, 삼성SDS멀티캠퍼스, 중소기업연수원, 한국가사안전공사,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인성교육협회, 현대인재개발원, 휴넷, 세계경영연구원, 리더십프런티어, MBTI연구소, 환경보전협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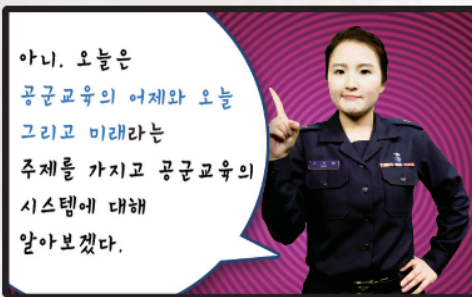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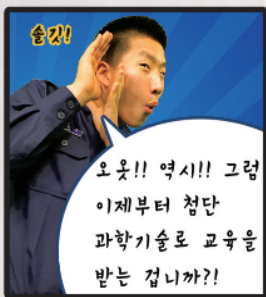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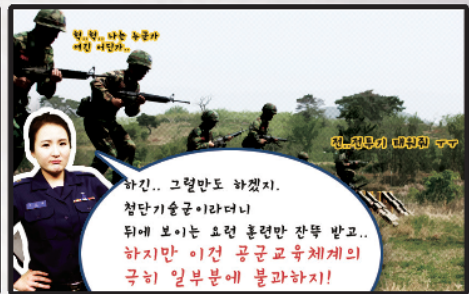
신청시기는 매년 11월에 접수해(부대 인사/교육참모) 다음해 1월 최종 선발되며, 교육기간은 직무연수과정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주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발대상은 공군의 간부 및 군무원 중 장기복무자로 교육이수 후, 현 직책에서 12개월 이상 근무가능자이며, 특기와 보직에 관련된 교육과정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분야 직무교육 및 법정교육 필수과정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리, 더 많은 배움을 얻고자 하는 공군인들은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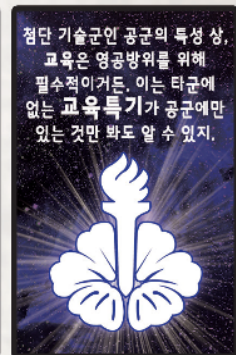


더 똑똑한 공군!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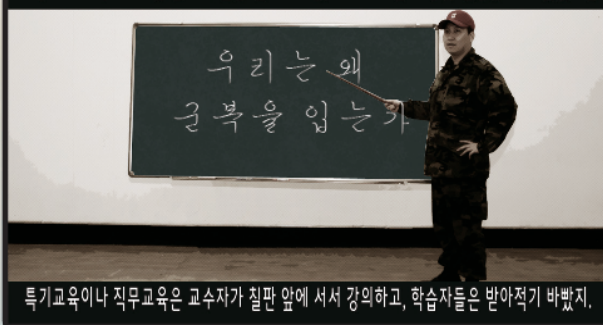




잠시 후.. 교육사령부의 안 학과장



그렇다고 교육하기에는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어. 초기에는 마땅한 연병장조차 없었거든.



반면 지금은 최첨단 시설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지.





게다가 이제는 예전처럼
교본은 무조건 책이라는
편견은 버려야해!



앞으로는 스마트패드를
활용해서, 글로 이해가
힘든 부분은 동영상까지
붙들여가며 확실하게
공부 할 수 있게 되지.



부대훈련도 달라져. 예전에는 시범조교의 동작과 함께 교관이 설명하고,
바로 훈련을 시작했었지.



그런데 앞으로는 실사격처럼 위험하고
강도 높은 훈련은 VR(Virtual Reality)를
이용해 먼저 체험하는 시스템이
구축 될 예정이야. 안전은 물론이고 더 높은
교육효과를 낼 수 있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은 오직 컴퓨터 앞에서만 이뤄졌어.



하지만 공군교육에서는 이미
군부대 내의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준비중이야.



이 스마트패드는 인터넷 상으로만 접속 할 수 있게
설계가 될 것이라서 보안도 유지하면서
각 작업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이해하며
교육 받을 수 있지.



또한, 지금은 어약 분야만 가능하지만,
간부들을 위해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기계발학습
콘텐츠를 앞으로 인터넷에서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야.



공군은 늘 최고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최고의 인적 자원이
공
최고의 전투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때문이지.



공군의 훌륭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키워진 인력들은 전역 후 짝게는 기업.



크게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공군인들이 일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공군은 다양한 교육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지!



자, 어땠나? 나의 명강의가!!
공군 교육환경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귀에
쏙쏙 들어오.....



- 끝 END -

2012 壬辰年
대한민국 공군,

흑룡처럼
비상하라

——
질은 구름을 뚫고

——
태양을 향해 용솨음치는 흑룡처럼,

——
대한민국 공군 역시 힘차게 비상하겠습니다!



Peace-Eye와 F-15K 편대, 어명을 뚫고 '영공수호' 초계비행에 나서다.





여수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보무도 담당하 우리 공군의 Peace-Eye와 F-15K 편대



제1회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참모총장은 1월 19일, 공군회관에서 제1회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금을 전달하고 대상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비록 충분하진 않지만, 하늘사랑 장학재단에서 처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이번 행사는 그 어느 장학재단의 후원보다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장학금 수혜학생 여러분들은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조종사였던 부친의 각별한 열정과 뜨거운 조국애를 삶의 거울로 삼아 앞으로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

참모총장은 1월 17일, 공군회관에서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주관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사격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비행대대(102대대, 120대대, 153대대, 161대대, 205대대)와 탑건[소령 신건우(공 45, 주기종 F-15K)]을 포함한 개인수상자 모두에게 축하와 찬사를 보낸다.”고 말하고 “성공적인 사격대회를 위해 연마한 전투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준 조종사와 작전지원 장병 모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밝혔습니다.



美 7공군사령관 이·취임식

참모총장은 1월 6일, 오산기지에서 거행된 美 7공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이임하는 레밍턴 장군에게 “재임 기간 중 굳건한 한·미 동맹과 연합공군 전투수행능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는 등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고,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교량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로 취임하는 주아스 사령관에게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양국 공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하했습니다.



공군 이웃사랑회 임원 접견

참모총장은 1월 17일, 위문금 전달차 방문한 공군 이웃사랑회 서용길 회장을 비롯한 임원 일행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순직조종사 가족, 항공기소음 피해주민 위로 등 공군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라와 이웃, 그리고 공군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있는 공군 이웃사랑회의 활동은 공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R FORCE MONTHLY

2012. 02. NEWS

제11전투비행단

원스톱(One-Stop) 제설작전으로 동계공중작전 이상 무!

제11전투비행단은 겨울철 폭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출격을 위해 활주로를 비롯한 Taxi-way, 주기장, 주요 작전도로에 신속히 장비와 인원을 투입해 제설작전을 실시했다. 사진은 항공기 엔진을 개조한 제설장비 SE-88이 11전비 활주로 제설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공군, '이동형 발전차량' 전군 최초로 도입!
대규모 정전사태, 전시 단전상황에도 전력지원 이상 무!



공군은 군 최초로 발전용량 2,000kW급 '이동형 발전차' 도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비상발전이 필요한 공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동형 발전차'는 지난해 9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 등 전·평시 단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부대에 대용량의 비상전력을 장기간 지원할 수 있는 장비다. 공군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주요작전시설에 비상발전기를 갖추고 있었으나, 발전용량이 최대 600kW에 불과해 전력 공급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항공작전, 부대방호 등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군은 전력지원이 가능하면서도 기동성도 갖춘 특수 차량의 개발에 착수, 트랙터에 발전기를 결합한 형태의 '이동형 발전차'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차량에 탑재된 발전기는 발전용량이 2,000kW로서 1개 비행단 최대전력 사용량 기준 연속 500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이는 20일 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트랙터는 520마력의 출력으로 20톤에 달하는 발전기를 싣고도 무리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창군 64년 만에 軍-기업 협력 새로운 전기 열다!
軍은 기업에게 안보의식을, 기업은 軍에게 국민적 후원을!

지난 1월 17일, 국방부와 한국경제신문사는 군과 기업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1社 1兵營 자매결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운동은 지휘관의 인맥에 따라 기업이 바뀌거나, 일회성 행사에 그쳤던 기존의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운동을 통해 군은 결연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병영체험을 실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군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고, 기업은 정기 위문

과 사업장 견학, 결연부대 출신 모범 전역장병 취직지원을 통해 '안보와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중점을 뒀다.

1社 1兵營 자매결연 공군 결과

기업명	부대명
우리투자증권	제1전투비행단
동국제강	제5전술공수비행단
금호리조트	제8전투비행단
대우조선해양	제11전투비행단
빙그레	제15혼성비행단
일진제강	제16전투비행단
두산건설	제17전투비행단
국민은행	제19전투비행단
솔로몬투자증권	기본군사훈련단

방공포병학교, 부대 전 지역 금연지역 선포!
금연이야말로 전투형 강군 육성의 밑거름이다!



방공포병학교는 임진년 새해부로 '담배연기 없는 병영'을 선포했다. 지난해 12월, 금연유예기간을 운영한 방공포병학교는 새해 학교 전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공포병학교는 전 장병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담배수거함 설치, 부대 내 금연 포스터 및 스티커, 금연책자 등을 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대인근 구경 보건소와 연계해 이동식 금연 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장병들의 지속적인 금연을 위해 포상, 모범장병, 우수교관 선발 시 비흡연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교육생들에게는 금연교육시간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의 금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비버에게 박수를

'바다살'이라고도 불리는 비버(beaver)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 서식하는 수중 동물입니다. 주로 하천이나 늪에 사는 비버는 튼튼한 앞니로 나무 밑동을 갉아 넘어뜨린 다음, 거기에 나뭇가지나 진흙, 돌맹이를 차곡차곡 쌓고 냇물을 막아 댐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무를 갉아대는 능력이 뛰어난 비버는 지름 20cm 정도의 나무는 가볍게 넘어뜨리고, 때로는 1m가 넘는 두꺼운 나무도 금세 쓰러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댐의 길이는 보통 20~30m, 긴 것은 무려 700m에 이른다고 하니, 사람이 짓는 것에 버금가는 그 규모에 입이 짝 벌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버 댐'은 생태계와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버가 댐을 지으면 주위에 큰 습지가 생겨나 그 일대의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여러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각종 동물들이 모여 보금자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점차 '비버 댐' 주위는 다양한 종의 생물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의 터전이자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변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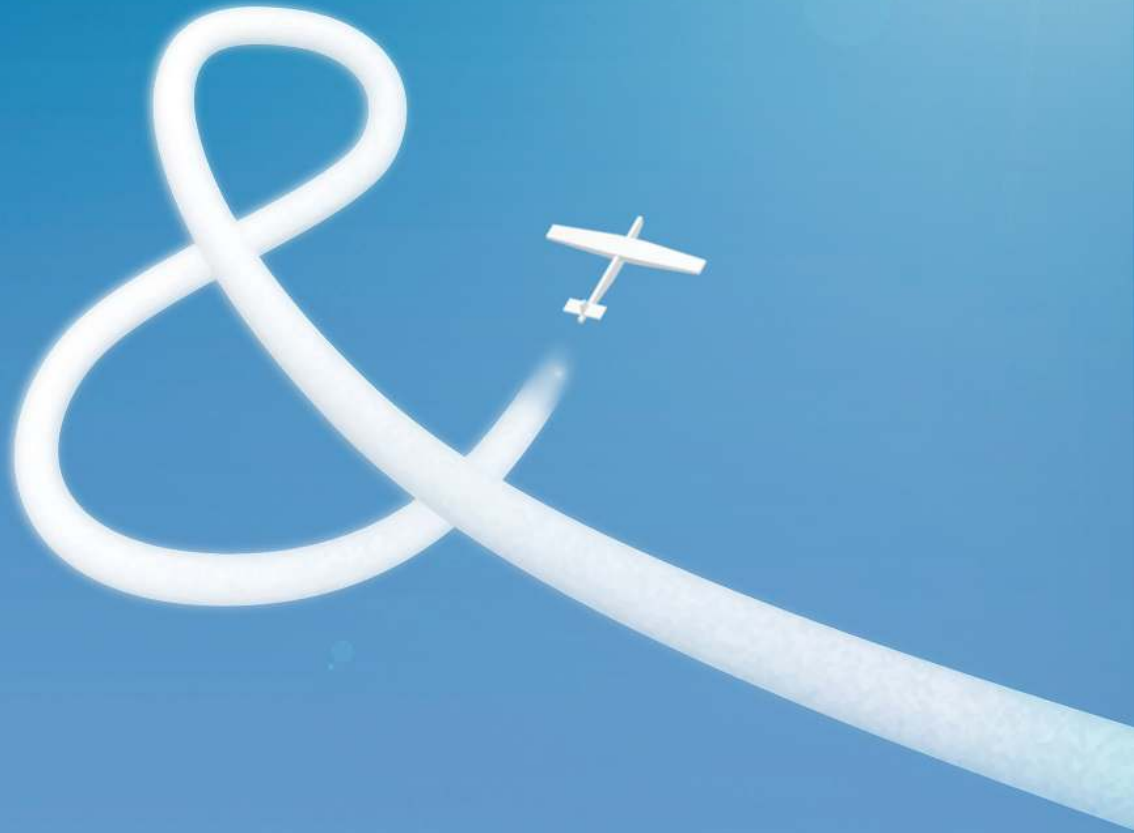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버 댐은 강물이 흐르는 속도를 줄여 여름철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는 데도 그만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비버가 만들어준 튼튼한 댐 덕분에 큰 홍수 피해를 여러 번이나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몸집의 비버가 이렇게 큰 댐을 만들려면 여간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비버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물과 육지를 들락날락하면서 열심히 댐을 만들고, 댐에 틈이 벌어져 물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 틈을 메울 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버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알려져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그는 비버처럼 일한다(He works like a beaver)'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댐을 지어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부지런히 만든 것은 물론 다른 생물과 인간에게까지 큰 이익을 주는 비버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늘을 향한 동심은 끝없어...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

<http://www.yfk.or.kr>



Culture

36.5

Hollywood English 흑성탈출 : 진화의 시작

인생은 아름다워 비극적인 여왕 디도 이야기,
헨리 퍼셀 <디도와 아에네아스>

Art in Everyday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Air-Supply 花無十日紅

Preview 2월의 문화행사



혹성탈출 : 진화의 시작

영화의 속편인 sequel의 반대는?!

영화의 속편을 sequel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5-제국의 역습 Star Wars Episode V : The Empire Strikes Back>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4-새로운 희망 Star Wars>의 sequel인 것이지요. 반면 영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이전의 사건이나 내용을 다룬 속편은 prequel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3-시스의 복수 Star Wars : Episode III : Revenge Of The Sith>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4>의 prequel이지요.

그럼 <혹성탈출 : 진화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컴퓨터 용어이기도 한 reboot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아 시리즈의 연속성에 파격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이 reboot인데요, <혹성탈출 : 진화의 시작>은 새로운 시리즈의 원전 (origin story)으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개봉하는 <어메이징 스파이더 맨 The Amazing Spider-Man>도 2002년 작품인 <스파이더 맨 Spider-Man>의 reboot 버전입니다.

Evolution becomes revolution!

영화의 홍보문구를 tagline이라고 하는데요, <혹성탈출 : 진화의 시작>의 tagline은 'Evolution becomes revolution'입니다. '진화가 혁명의 도화선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영화에선 누구에게, 어떤 진화가 일어난다는 뜻 일까요? 인간의 두뇌가 인간의 적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상상의 결과가 이 영화입니다. 월(제임스 프랑코)은 생명공학회사인 젠시스(Gen-Sys)의 과학자입니다. 그의 임무는 치매(Alzheimer's disease)를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에이즈에 걸린 소년과 이웃 소년의 아름다운 우정을 그린 영화인 <굿바이 마이 프렌드>의 원제목은 무엇 일까요? 맞습니다. 'Cure'입니다. 치료약이란 뜻이지요.

월은 새로 만든 Cure로 침팬지에게 임상실험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 침팬지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게 되는데요, 위험성을 감지한 월의 보스는 실험용 침팬지들을 사살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 침팬지를 발견한 월은 녀석을 집에 몰래 데려가 키우게 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월의 아버지는 아기 침팬지에게 시저(Caesar)란 멋진 이름을 붙여줍니다. 녀석이 침팬지들의 지도자가 될 운명임을 짐작케 하는 이름이지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시저는 커가면서 자신이 인간과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결국 뜻하지 않은 사고를 낸 시저는 동물보호소에 감금됩니다. 시저의 지능 수준은 월의 대사에서 간파할 수 있겠습니 다. "시저는 세 살 때 이미 여덟 살 혹은 그 이상의 유인원이 풀 수수께끼를 풀었다(At age 3, Caesar has completed puzzles ages 8 and up)."



Caesar is home!

한편 월은 아버지의 병세를 호전시킬 약을 개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효능이 더 좋은 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운명합니다. 그 무렵 감금된 시저는 자신을 위협하는 유인원 무리들을 지배하기 위해 독방에 갇힌 고릴라를 풀어 그의 도움을 받아 통치력을 획득합니다. 심지어 뇌물을 써서 시저를 빼내려고 찾아간 월을 외면합니다. 월에게 사정이 있었던 건데 자기를 보호소에 방치해둔 걸 버린 것으로 오해한 것이지요. 상황은 시저가 동료 유인원들을 선동해 보호소를 탈출하면서 치명적 양상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시저는 월이 만든 치매 치료약을 훔칩니다. 과연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저는 보호소의 유인원들을 모두 탈출시킨 다음 금문교를 건너는데 성공합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 진압대와 대치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진압 작전은 시저의 지휘능력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교전에서 대승한 시저는 유인원들과 삼나무 공원 속 울창한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으로 월도 달려갑니다. 삼나무 숲은 월이 함께 살 때 시저를 즐겨 산책시켰던 곳이니깐요. 마침내 둘이 마주하게 되고, 월이 먼저 입을 뗍니다. “내가 널 집에 데려다줄게(I'll take you home).” 그러자 시저가 차갑게 반응합니다. “시저는 이미 집에 와있어(Caesar is home).” 이젠 삼나무 숲이 그들의 보금자리라는 뜻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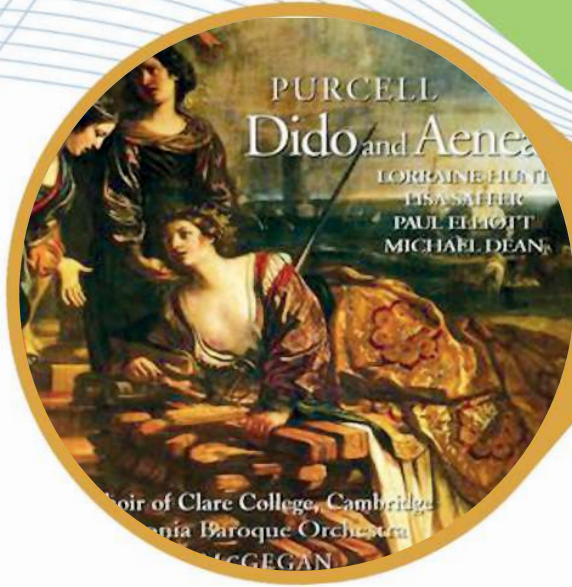
속편 제작 가능성과 우주선 이카루스

이 영화의 속편 제작은 매우 긍정적으로 예측되고 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제작비로 9천3백만 달러를 투입해 global box office, 즉 전 세계 흥행에서 무려 4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니까요. 아울러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의 리처드 콜리스 기자가 2011년 최고 작품 베스트 10(The Top 10 Best Movies of 2011) 중 한 편으로 꼽았을 만큼 평도 좋으니까요. 무명이나 다름없던 루퍼트 와이어트 감독은 이 작품으로 일약 신데렐라가 됐는데요, 과연 속편에서도 그가 메가폰을 잡을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시나리오 작가이자 제작자인 릭 자파는 sequel, 즉 후속편의 탄생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미래의 속편들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른 종의 유인원 등 관객들이 궁금해 할 요소들에 관해 많은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I hope that we're building a platform for future films. We're trying to plant a lot of the seeds for a lot of the things you are talking about in terms of the different apes and so forth).” 릭 자파의 추가적인 술회에 따르면, 1968년에 나온 첫 작품인 <혹성탈출>에는 우주선 이카루스(Icarus)가 등장하는데요, 릭은 이 우주선의 존재가 속편에서 다루어지는 기획에 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하는군요.

[보너스] 신년호 <Hollywood English>에 소개된 <장화신은 고양이 Puss In Boots> 같은 경우, 스펠오프(spinoff)라 부릅니다. 스펠오프는 이미 개봉한 영화의 등장인물을 독립적인 주인공으로 내세워 새롭게 만든 영화를 말합니다. **AF**





비극적인 여왕 디도 이야기, 헨리 퍼셀_〈디도와 아에네아스〉

작년 11월 개봉한 영화 <신들의 전쟁>에는 인류를 구원하는 영웅 '테세우스'의 이야기가 나온다. 두려움을 모르는 자, 그리하여 신이 신뢰하는 유일한 인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재로 만들어진 이 영화에는 신들의 이야기와, 신의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전쟁 이야기가 그려진다. 신화를 영화화한 작품이 어디 <신들의 전쟁>뿐이라. 북극 신화를 소재로 만들어진 천둥의 신 <토르> 역시 신화의 세계에서 꽃핀 작품이며, 북극 신화에서 탄생한 <반지의 제왕> 역시 흥미진진한 판타지로 객석을 사로잡은 영화였다. 그뿐 아니다. 신들의 황혼을 게임으로 만든 '라그나로크' 역시 신화에서 시작된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세계였음을 잊을 수 없다. 이처럼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신비로운 신화의 세계... 신화는 요즘 3D라는 기술

을 만나면서 더욱 날개를 달았다. 3D가 주는 생생한 현장감, 이 시대의 감동적인 기술과 흥미로운 콘텐츠의 결합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오페라'라는 장르는 지금은 '클래식' 같다는 인식을 갖게 하지만, 3~400년 전만 해도 첨단을 달리는 공연예술이었다. 화려한 무대며 소품, 불꽃 장면, 하늘을 나는 장치 등 당시에는 그 어떤 장르도 따라올 수 없는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입장권도 상당히 고가였던 오페라는 부유한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고, 왕이나 귀족의 결혼식에서 행해지던 특별한 음악극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오페라가 유달리 특별한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도 아니었다. 지금처럼 신화를 소재로 했던 당시에도 고대로부터 시작된 신화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제 역할을 다했다.

그럼, 지금부터 신화를 소재로 만들어진 오페라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영국 런던에서 상연되었던 작품 <디도와 아에네아스> 이야기이다.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 그리고 트로이의 전사 '아에네아스'. 이 오페라는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시작된다. 트로이의 왕족 아에네아스는 트로이의 목마에 의해 함락된 트로이의 유민들을 데리고 새로운 왕국을 찾아 떠나야 하는 운명. 하지만 아에네아스는 잠시 들른 시칠리아 반대편 아프리카 해안에서 여왕 카르타고를 만나고, 제우스의 신탁도 잇은 채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아에네아스의 웅망한 모험담에 반한 디도. 하지만 '로마'를 탄생시켜야 하는 거룩한 운명을 타고난 아에네아스는 평온하게 카르타고에 머무를 수만은 없는 운명이었다.

아에네아스의 기나긴 모험담은 '파리스의 사과'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트로이의 왕자 출신이었던 파리스는 산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다가 불화의 여신 '헤라'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여신 헤라, 아테네, 아프로디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꼽아야 하는 어려운 시험에 든 것이다. 사실 둘째가라면 모두 서러워할 그리스 여신이건만, 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꼽아야 하더니...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 어떤 결론도 내리기 어려웠던 파리스. 그는 절세미인 '헬레네'를 아내로 맞게 해준다는 꼬임에 넘어가 아프로디테를 최고의 여신으로 꼽았다. 이에 화가 난 헤라와 아테네. 이들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전쟁을 부추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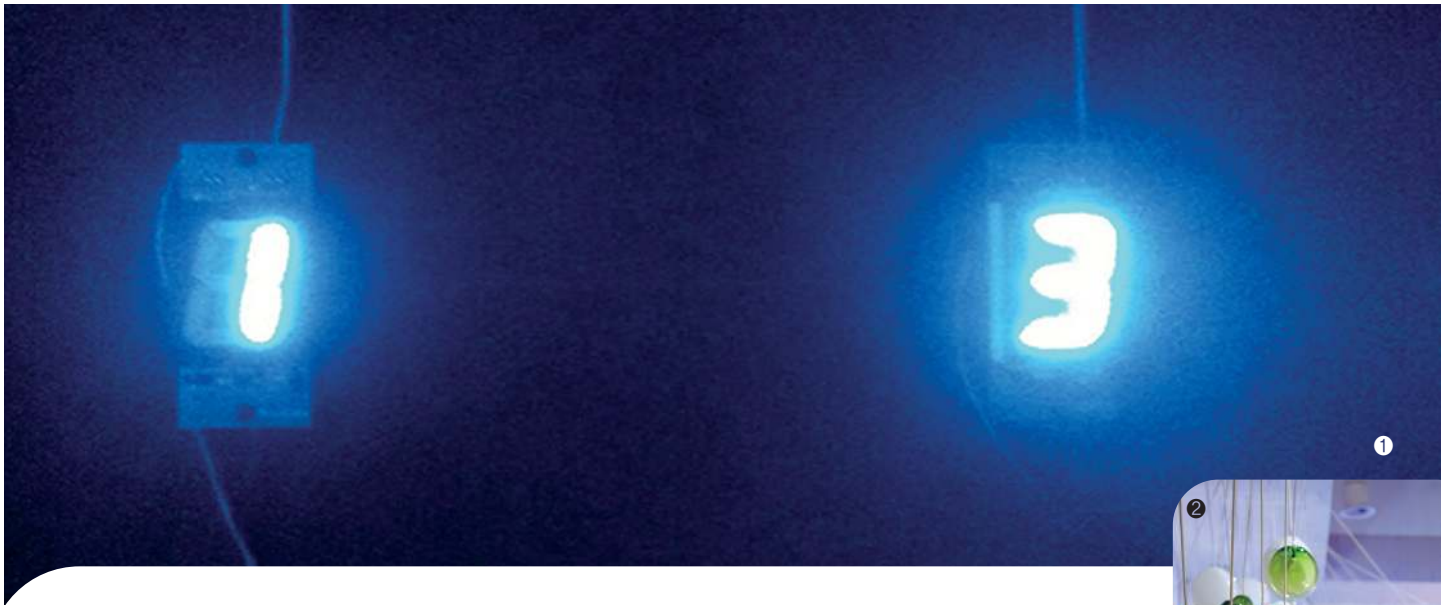
사실 아프로디테가 맺어준 파리스의 여인 헬레네는 유부녀였다. 아내를 빼앗긴 스파르타 왕은 여신 헤라, 아테네를 등에 업고, 술수에 능한 오디세우스, 전사 아킬레우스와 함께 전쟁을 일으킨다. 신들의 자존심 대결에 인간의 싸움이 더해진 팽팽한 트로이 전쟁. 이렇게 해서 시작된 트로이 전쟁은 무려 10년이나 계속되었고,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무수히 많은 군사와 웅망한 전사 아킬레우스가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전쟁은 오디세우스의 마지막 계략으로 비

로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속이 빈 거대한 목마를 짓게 하고는 그 안에 그리스 군 정예요원을 들어가게 한 다음, 그리스 군이 철수하면서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트로이 해안에 세워둔 것이다. 트로이 사람들은 목마를 성안으로 들고는 전쟁이 끝난 것을 자축하며 술에 취해 잠이 든다. 모두가 잠이 든 어두컴컴한 밤. 목마에 들어가 있던 그리스 정예병들이 나와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이렇게 해서 10년간 계속된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이 난다.

트로이의 왕족이었던 아에네아스. 그는 트로이의 패잔병과 유민을 데리고 새로운 왕국을 찾아 나서는 길이었다. 거친 풍랑과 폭풍을 뚫고 카르타고에 도착한 아에네아스는 그곳에서 여왕 디도를 만나고, 오랜 모험길 끝에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두 사람의 결합... 그것은 두 왕국의 결합이 가져오는 평화로운 번영의 길이었다. 하지만 여왕 디도를 질투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마녀들과 마법사는 간악한 꾀와 마법으로 아에네아스의 운명을 재촉했다. 제우스가 보낸 것으로 가장한 정령을 꾸며내어, 오늘날 당장 떠나라고 명한 것이다. 신들의 제왕이신 제우스의 명령.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아에네아스는 차마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사랑하는 여인 디도를 뒤로하고 떠나는 아에네아스는 "제우스의 명령에도 나는 머무르겠소. 신을 거역하고 사랑을 지키겠소."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닳을 올린 배에 몸을 싣고 자신에게 지워진 운명의 길을 나아간다.

떠나는 배를 멀리서 바라보는 디도. 하염없는 눈물을 짓는 디도 여왕은 이 전부터 슬픈 운명을 위해 준비했던 장작더미에 오른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 이렇게 말한다. "나 이 땅에 묻힐 때, 내 잘못, 더 이상 당신 가슴 아프게 하지 않기를, 나를 기억해 주오. 그러나 내 운명은 잊어주오" 그렇게 한 맺힌 디도 여왕은 칼로 자신을 찌르며 숨을 거둔다. 그녀의 백성들을 뒤로한 채 말이다. 사랑받지 못한 이 비극적인 여왕의 저주는 그 후로도 계속 되었으니, 그것은 훗날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AF**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2012년 흑룡과 함께 긴 꼬리를 흔들며 우리에게 날아든 또 하나의 강력한 암시가 있었으니 바로 종말론이다. 이번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고대 마야 문명의 달력이 그 뿌리였다. 5125년 전 시작된 마야력, 그 마야력이 끝나는 시기가 2012년인 올해 12월 21일 동지란다. 따라서 이것은 곧 이 세상의 종말을 뜻한다는 것이 종말론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시작이 있었으니 언젠가 끝도 있으리란 예측에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종말론을 둘러싸고 이러니저러니 떠드는 사람들 중에 그 소멸의 순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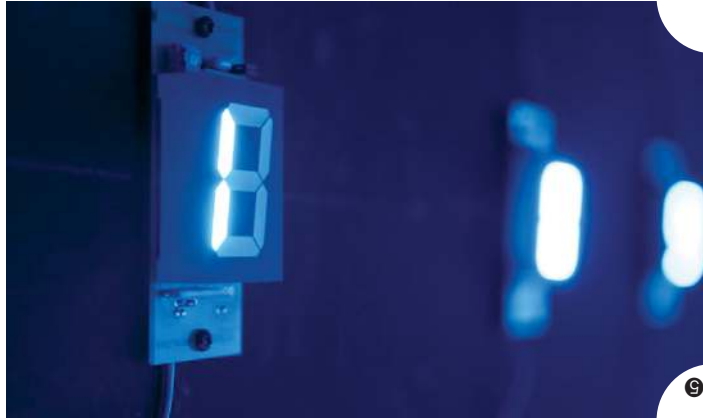
사실 종말론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얻었던 건 지난 1999년이다. 20세기에 안녕을 고하던 세기말. 사람들은 다가올 미지의 세기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속에 너도나도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열린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 전시회 베니스 비엔날레. 1999년 6월에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은 작품은 바로 일본작가 다츠오 미야지마의 'Mega Death'였다. 몇 년 뒤 우리나라의 한 미술관에서 열린 그의 개인전에서 바로 그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두꺼운 검은 장막을 걷고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 푸른 빛깔의 어둠 속에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둠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전시장 안에 푸른빛을 쏟아내고 있는 주인공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푸른 빛깔의 LED 숫자판. 저마다 다른 숫자를 표시하고 있는 그 숫자판들은 9, 8, 7, 6, 5, ... 이렇게 거꾸로 숫자세기를 계속하고 있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함께하던 어느 순간, 갑자기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LED 숫자판의 조명이 일제히 꺼져 버린다. 완벽한 어둠·소멸·단절. 이 작품을 관람하던 학생들 몇은 갑작스런 어둠에 비명을 지르고, 서둘러 전시장 밖의 빛을 찾아 나가버리기

도 했다. 그 학생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나를 덮친 그 암흑의 순간은 아직까지도 마음 한쪽에 서늘함으로 남아 있다. 웬지 모를 슬픔마저 느껴지던 어두운 정적. 그 순간 그 넓은 벽면 한쪽에서 반짝, LED의 숫자판 하나에 불이 들어온다. 마치 갓난아이가 처음 눈을 뜨듯 그렇게.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앞을 다투어 하나씩 불이 들어와 다시 전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카운트다운 시작하는 숫자판의 조명들. 하지만 암흑을 경험한 나에게 그건 처음 만났던 그 불빛이 아니었다. 저마다 따스한 온기마저 느껴지는, 다시 돌아와 줘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어지는 생명을 가진 불빛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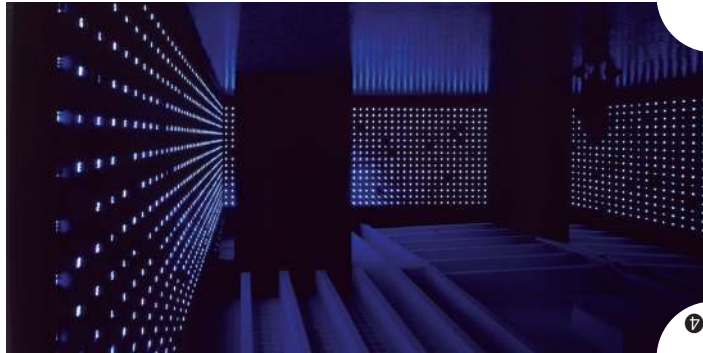
다츠오 미야지마는 1957년에 태어난 미디어 작가로 1987년에 처음 시작한 LED를 이용한 작업은 이제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동양적인 사상을 서구의 과학기술 위에 담아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게 호소할 수 있는 소통의 매체가 된 것이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개인, 국가, 나아가 인류의 역사적 의미와 공공성의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들을 엿볼 수 있는데 이 작품 'Mega Death' 역시 마찬가지다. 그가 이 작품에서 사용한 카운트다운을 하는 LED를 그는 가제트라고 이름 붙였다. 가제트는 9에서부터 1까지의 숫자를 거꾸로 세어 내려가는데 1 다음에 0을 나타낼 시점에서는 빛이 꺼진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9라는 불빛이 들어와 다시 거꾸로 숫자세기를 시작한다. 그에게 있어 0, 즉 제로는 어둠이며 죽음을 뜻하고 빛은 하나의 시간, 하나의 우주, 한 인간의 생명이 빛나는 것을 상징한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있어 생(生)은 인간의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상태이고, 사(死)는 인간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상태일 뿐,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눈에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차이일 뿐 존재 자체는 영원하다는 불교의 철학이 녹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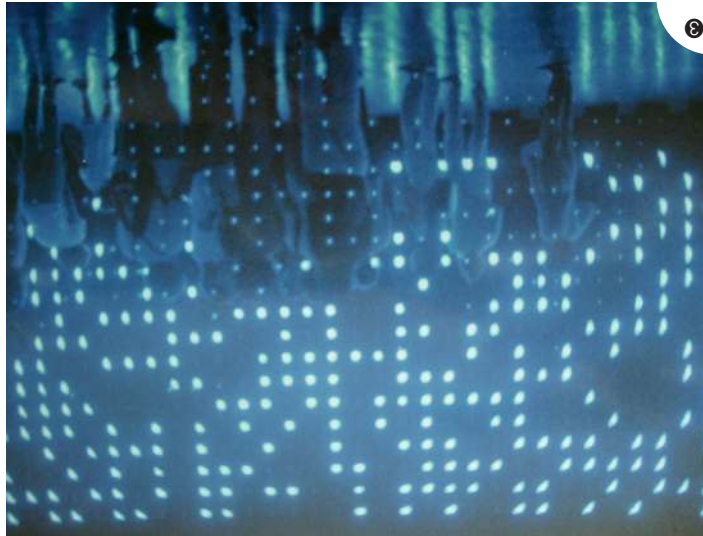
⑥



⑤



④



③

- ① Taisuo Miyajima, MEGA DEATH, 1999, detail
- ② Tobias Rehberger, 7 ends of the world, 2003, detail
- ③ Taisuo Miyajima, MEGA DEATH
- ④ Taisuo Miyajima, MEGA DEATH, 1999
- ⑤ Taisuo Miyajima, MEGA DEATH, 1999, detail 2002
- ⑥ Tobias Rehberger, 7 ends of the world, 2003

이러는 램프 하나를 밝히고 싶었다'고 AF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바로 내림 지구의 중립이 온다 해도 나는 세상은 밝
그 전선 끝에 램프 하나를 매달고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해보면 서너는
아니었을까

있는 여기가 바로 폼 뽀뽀 세계의 끝일 수도 있다. 작가가 담긴 속재 공계
를 기다리는 듯한, 내게 손을 벌리고 있는 듯한 기다란 전선. 그건 바로 담장이 서
는 끝자락에 늘어선 전선 하나를 남겨져 있었다. 마치 그 끝에 매달릴 친구 하나
를 갖게 되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조명의 속이 어
디를 한 줄기의 빛. 그 조명을 사이어를 걸면 서원지 원안을 밝히는 듯 한 느낌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세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세상의 끝을 비추는
그 아동을 밝히고, 또 서로 다른 빛을 가진 두 지역의 불빛이 만나 새롭고 볼
물 속에 잠긴 곳도 있었다. 하지만 전선 안에서는 다른 지역의 불빛이 바로
이런 느낌인데, 그 중에는 현재 환한 빛으로 가득한 곳도 있었고, 깊은 밤의 어
지적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선 안에서 한 곳에 또 어찌 한 세계
전선 안이 담겨 있었다.

터너를 통해 쉬어간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그 장소의 빛을 축적해서 지
거져 있던 이를 장소에 어울리는 빛깔을 묻거나 그 빛깔을 우리 조명을 만들고, 인
시정에서 이를 조명이 모두 빛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작가는 자신이 직접
이상의 희망이 없는 우물하고 슬픈 느낌을 주는 것을 상상하게 한다. 그런데 전
장원. 이 장소들은 작가가 지구가 멸망하는 부 자선이 있어 주고 싶은 곳으로,
베나스의 공회, 체르노빌 북쪽의 작은 주차장, 이탈리아 베나스 메스트레 역의 화
동 일류 프루트 에 있는 맥주 바, 라스베이가스 한 호텔에 있는 모퉁이로 만든
클리어에 있는 해발 6643미터의 어느 이를 있는 산 옆으로 버려진 버거킹,
의미하는 곳,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 이를 볼 수 있는 곳까지 확보할, 의
다. 각각의 빛깔에 따라 램프를 개개 나뉘어 매달려 있는 램프들이 의
원한 무라노의 장인들과 협력해서 만든 것으로 하나하나 아름답기가 이를 데 없
222개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이 램프들은 작가가 이탈리아의 우리 문화로 우
서웠던 그 개인 전선 공간에는 형용색의 우리로 만든 크고 작은 램프
올해 2003년에 선보인 그의 작품은 '7 ends of the world'. 역시 우리나라에
거는 조금 더 큰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역시 베나스 메스트레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밝히는 독일 작가 램프는 독일 작가 토마스 레베르
근기를, 그 삶의 함정이 빛어내는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껴보기를 바란다.

운하고, 그 아동을 차려로 하나씩 밝혀나가는 불빛들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
우듯 게임처럼 죽음을 버려볼 게 아니라 보다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할 기회를 제
미한다. 그는 그 감각스럽고 짧은 일들 속에서, 현대인들이 영하 TV 뉴스에서 전
단, 대량 학살, 전쟁 관련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아에 죽음을 갖게 되는 것
인물이 죽는 재단을, 그러니까 자선이나 쓰나미 같은 재난 재해부터 테러나 원자폭
공터 공터의 속도 역시 다르다. 그러다가 영계의 모든 불빛이 꺼져 버리는 것은
상에 뛰어가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의미하며, 저마다의 삶의 속도가 다르듯 카
그런 의미에서 'Mega Death'의 벽면을 가득 채운 거제들은 이 지구



花無十日紅

(영화를 볼 순 없다)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이주노가 결혼했다. 이주노는 1967년생, 올해로 마흔 여섯이다. 그런데 아내는 1990년생, 스물 셋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아내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던 1992년에 불과 두 살이 었다는 이야기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주노는 자신의 장인과 불과 네 살 차이다. 장 모와는 두 살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주노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인과 함께 출연했는데, 그 때 장인 앞에서 최대한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서 화제가 됐다. 이렇다보니 인터넷에서는 이주노의 결혼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오갔다. 이주노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부터 둘이 서로 사랑한 것인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의견, 딸의 부모 마음이 어떨까라는 관심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김완선은 이렇게 말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왜 다 이상하게 결혼 해?”

서태지는 탤런트 이지아와 비밀리에 결혼해 이혼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밝혀져 충격을 줬고, 양현석은 자신의 소속사 가수와 오랫동안 사귀다 결혼을 하고 딸을 얻었다. 1990년대는 물론 역대 최고의 스타였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느새 결혼을 하게 됐고, 그들의 결혼은 유명세만큼이나 범상치 않았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자랐을지도 모를 여자와 결혼한다. 이거야 말로 한 시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1990년대 청년문화의 상징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느덧 40대가 되어 결혼은 물론 이혼 한 번쯤 해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것이다.

또한 이주노가 자신의 결혼소식을 알린 곳이 한 케이블 TV의 리얼리티쇼였다는 점은 시대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주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로의 컴백을 시도했다. 그 전설적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가 어느새 컴백을 위해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는 신세가 됐다. 반면, 또 다른 멤버인 양현석은 빅뱅과 2NE1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오너로 회사 주식만으로도 1,000억대의 부자가 됐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양현석이 잘 살았고, 그렇지 못한 이주노가 잘 못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영원한 신화일 것 같았던 서태지와 아이들에게도 그 뒤의 인생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누군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영광을 다 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됐을 당시 그들은 여전히 20대였다. 가장 어린 서태지의 나이는 불과 스물 다섯이었다. 그 사이 번 돈은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됐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살아야 할 날이 너무나



많았다. 그들의 현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해체 후에도 계속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려낸 궤적이다.

스타가 무대 위에서 비추는 빛은 찬란하지만, 그들에게도 그 다음의 생이 있다. 최고의 아이돌 스타였던 그룹 H.O.T.의 토니 안은 사업가로 나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했고, 강타는 자신이 일했던 회사에서 이사에 올라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반면 그룹 젝스키스의 강성훈은 사기 사건에 연루됐고, 그룹 NRG의 이성진은 도박과 사기로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이 불가능할 지경이 됐다. 지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아이들도 10년 뒤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를 일이다. 10대 시절에 인기를 얻는 아이돌과 평범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의 인생은 달라 보인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 모두 그 후 몇 십년을 더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큼은 똑같다. 왕년의 스타들이 각자의 인생을 사는 현재의 모습은 이 당연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

그래서 SBS <일요일이 좋다>의 'K팝 스타'에 출연하는 보아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보아는 한국에서 14살에 데뷔했고, 얼마 뒤 일본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됐다. 스물 여섯의 해까지 리믹스 포함 무려 400곡 이상의 노래를 발표했다. 'K팝 스타'를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상 '최연소 심사위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보아는 어린 나이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룬 셈이다. 이미 10대 시절 아시아 정상이었던 가수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20대의 보아가 보여주는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깊이다. 'K팝 스타' 속 보아의 모습은 다 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실례로 느껴질 만큼 속 깊은 모습을 보여준다. 겉말을 부리는 출연자에게는 "생각보다 노래를 못하네요?"라며 따끔한 일침을 날리는가 하면, 재능은 충분하지만 뭔가 부족했

던 출연자에게는 "자신감을 가져주고 감정을 실어라"라고 말해 불과 며칠 만에 실력을 끌어 올린다. 또한 눈이 보이지 않는 출연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 춤을 추자 눈물을 흘리는 감성까지 가졌다.

다른 심사위원들인 양현석과 박진영이 심사평을 두고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보아는 언제나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프로그램의 흐름을 끌고 간다. 이런 내면은 누가 가르친다고, 또는 인기가 많았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20대를 넘기면서 보아의 일본 내 인기는 조금씩 하향세를 보였다. 그건 아이돌 스타가 피해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아의 또 다른 전성기는 그 때부터였다. 10대 시절 이미 춤과 노래에서 또래 중 최고였다는 말을 들은 보아는 더욱 더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20대에는 여성 가수 중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세계적인 뮤직비디오 감독과 뮤지션들이 보아에게 "마이클 잭슨을 보는 것 같다"는 찬사를 던진 것도 그 때문이다. 'K팝 스타'에서 보아가 출연자들에게 건네는 말은 스타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건 스타이든 아니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그것에 정진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이 결합된 결과다.

10년 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성공과 실패도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진하면서 그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서태지와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인생을 산다.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그렇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될 것이다. **AF**

비극은 맞다. 하지만 웃기다!
연극 <햄릿>

화려한 조명 아래 짙은 분장을 하고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화려해 보이지만 공연이 끝나고 나면 소박하다 못해 남루해 보이기까지 한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 극중 인물이 아닌 자신의 삶을 걸고 진짜 '사느냐 죽느냐'를 논하는 연극인들의 하루를 감독 장진 스타일로 만나본다.

셰익스피어의 명작 '햄릿'의 마지막 공연을 앞둔 분장실. 크고 작은 사건들로 얽힌 분장실은 조용히 분주하다. TV 스타가 돼 주인공 자리를 꿰찬 '민'에게 사사건건 짜증이 나는 '재영'. 대학 시절 늘 주인공이던 재영이 조연이던 민을 반가워할 리 없다. 아동극부터 재연드라마까지 어떤 역할도 오케이지만 주인공으로 내정된 부인 앞에서 오디션 보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진우'.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부인의 비보를 들어야 하는 '지옥'까지 무대 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연극 대본 그 자체이다.

햄릿만큼 세계적으로 연극과 뮤지컬, 종이를 넘나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은 드물다. 하지만 햄릿에 사물놀이도 등장하고 마당놀이의 광대가 극 전개를 이끄는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대학로에 단 한 편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햄릿이 들고 있던 칼도 말을 한다. 생각의 틀을 관객이 따라갈 수 있을 만큼만 유쾌하게 바꿨다. 극 중에는 이런 대사도 있다. "8천원이면 할리우드 화려한 액션을 볼 수 있는데, 누가 몇 만원씩 주고 연극을 보니?" 정답은 장진표 연극에 있다. 낭만과 웃음을 얻는 자만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걸린 마법을 풀 수 있으리라. 햄릿의 칼자루, 이제 당신이 짙 차례이다.

- 기간 : 4월 8일까지
- 장소 : 서울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 가격 : VIP 5만원 / R 4만원 / S 3만원
- 홈페이지 : www.thebestplay.co.kr



〈연극열전4〉 첫 번째 작품 **Return to Hamlet**
2011. 12. 9 (금) OPEN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석 연출 장진
제작 + 연출 장진표 연출 + 무대 디자인 장진표 1 대역 안희진 1566-1988 후원 02-766-8807

PREVIEW

'옛사랑'을 '난 아직 모르잖아요.'
뮤지컬 <광화문연가>

뮤지컬 '광화문연가'는 고 이영훈 작곡가의 마지막 꿈이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첫사랑의 아픔과 우정, 추억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난 아직 모르잖아요', '붉은 노을',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 '깊은 밤을 날아서', '옛사랑' 등 주옥 같은 히트곡들에 투영된다. 덕수궁 돌담 길을 배경으로 남자 주인공 상훈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무대전환이 이루어진다. 극 전반에 흐르는 라틴댄스와 오케스트라 연주가 오래된 노래에 세련미를 더했다.

곡을 쓸 때 가사 한 소절도 남들에게 보이는 얼굴이라며 혼신의 힘을 다했던 작곡가 이영훈. 곡을 쓰기 전 항상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피아노를 닦았으며 어느 순간 지나가는 몇 소절을 잡기 위해 매일 열 시간 이상 밤새워 피아노와 함께한 일화로 유명하다. 한 소절의 가사를 얻기 위해 쓰고 지우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사람. 그는 세상에 없지만, 그의 가사가 여전히 많은 이들을 울고 웃게 한다. 광화문의 빌딩이 높게 올라가고 무너져도 광화문연가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를 이제 무대가 노래한다.

- 기간 : 2월 7일 ~ 3월 11일
- 장소 : 서울 LG아트센터
- 가격 : VIP 13만원 / R 11만원 / S 8만원 / A 5만원
- 홈페이지 : www.musicalyounga.com



Opinion

독자기고 鵬程萬里 “앞으로 가야 할 멀고도 먼 길”
○○이란 무엇인가(?)

Health Diary 의료방사선의 이해

책마을 여러분에게 2월의 의미는?

鵬程萬里

"앞으로 가야 할 멀고도 먼 길"



글. (예)소장 이상길 | 공군본부 감찰실장 역임

봉정만리(鵬程萬里). 전설 속의 새인 '봉'의 만리여정을 나타낸 고사성어로, '앞으로 가야 할 멀고도 먼 길'을 뜻한다. 10년 전 안타까운 헬기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료 조종사로서 느꼈던 소회와 각오를 담아 국방일보에 기고했던 글의 제목이기도 하다. 공군본부 감찰실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같은 제목으로 다시 글을 쓰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3주 전, 전투조종사로서의 마지막 비행을 내 젊음과 청춘을 바쳤던 팬텀 비행대대에서 마쳤다. 2~3일 전부터 컨디션 조절에 들어가는 등 요란스러울 정도로 비행을 준비했던 탓에 삼십년을 넘게 전투조종사의 아내로 살아온 집사람도 안전을 걱정했다. 장군이 굳이 위험한 비행을 하느냐며 핀잔을 주던 친구가 떠오른다. 하지만 "조종사에게 비행은 의무이자 명예이고, 후배들과의 교감을 위해 장군들도 비행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거창한 소명 의식으로 조종사의 길을 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렵고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궁지와 자부심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 3차원 공간에서 견디기 힘든 G-force와 블랙아웃(Black out, 중력가속도의 영향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다가 심하면 의식을 상실하는 현상)을 이겨내면서 희열감을 느낄 때도 많았다. 소령 시절 88올림픽 기간 중 심야초계비행을 하며 느꼈던 짜릿함은 아직도 뇌리에 뚜렷하다.

하지만 매 순간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불의의 비행사고로 동료 조종사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마다 받았던 충격과 비통함은 지금까지도 쉽게 떨쳐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비행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기강해이와 과실 의혹을 제기할 때였다.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조종간을 잡는 후배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다. 지상에서처럼 터놓고 점검할 수 없는 3차원 공간에서 진행되는 공중상황의 특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비행사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아쉬웠던 점은 4~5년 전 앞날이 창창한 조종사 후배들이 다수 전역한 것을 두고 단지 돈 때문에 민항사로 이직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을 때다. 의무복무기간 동안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그들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 조종사들이 사회적 성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승의 핵심요소인 조종사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

공군본부 감찰실장 임무를 수행하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지만, 또 다시 두 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긴하지만, 지난 한 해 비행안전에 위한 노력과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내일의 비행 안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마음의 고향 공군을 떠나지만, 후배들은 국민들의 진정한 격려 속에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 10년 전 원고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봉정만리의 각오로 우리가 가야 할 '멀고도 먼 길', 조국을 위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조종간을 더욱 굳게 잡아야 될 줄 안다. 오늘도 하늘로 비상하는 젊은 보라매들의 앞길에 무한한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AF**

○○ 이란 무엇인가(?)

글. 대령 최원기 | 국방대학교 합동교리발전부



우연찮게 EBS 방송을 통해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강의를 시청하게 되었다.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 한 학기 분량을 계속 방영하는 것이어서 제법 지루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채널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은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라”였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자만이 기존의 틀에 머물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패러다임을 깨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라고...

강의를 듣다보니 갑자기 클라우제비츠의 역저인 「전쟁론」이 생각났다. 책자의 본문 첫 장의 제목이 바로 「전쟁이란 무엇인가?」였던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도 아마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의된 전쟁이 아닌 전쟁을 정의해 가는 군사전문가가 되라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최근에 깜짝 놀랄만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2011년 UFG 중에 공구사 요원으로 연합사에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회의 좌장인 미 공군대령이 던진 한 마디가 나를 충격에 빠지게 하였다. 그가 던진 단 한 마디.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오.”

그는 미 국방부에서 연합사를 지원하기 위해 온 EBO(Effective Based Operations, 효과기반 작전) 분야의 전문가였다. 소위 지상군 요원 일색인 연합사에서 미 공군대령이 한 수 지도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보니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미 공군 조종사들이 임무현장에서 사용하는 CRM(Cockpit Resource Management, 비행지원관리) 관련 Check List였다. 항목마다 온통 물음표(?)로 도배된 점검철...

세계 최고라는 하버드에서 그것도 가장 인기가 높다는 교수가 던지는 메시지와 손자와 비견되다는 클라우제비츠의 메시지, 그리고 미 공군 현장에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너무도 흡사한 것을 단지 우연의 일치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공군도 기본교리를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군 기본교리('07년 판) 2절 「전쟁의 원칙」에는 공군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전쟁 또는 어떤 형태의 군사 활동이든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월남전에서 미국이 범한 목표의 남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목표설정이 명확한 지상군과 달리 3차원의 영역을 설명해야 하는 공군인에게 목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현 작전계획을 보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심리 등등.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요소와 작전목표를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 즉 제 요소들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목표달성에 어떻게 효과적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할 기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질문”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작전성고가 적의 리더십이나 의지 등 보이지 않는 요소에 어떻게 효과적 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공군인으로서 더더욱 필요한 기본기가 아니던가.

“임도 보고 뿡도 땀다.”고 하더니 군에서 기본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실상은 사회의 최고 두뇌집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려 보게 되었다.

아무튼 임무현장에서 젊은 병사들에게 뭔가 전해줄 것이 생겼다. 너희들 하버드 대학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공군기본교리만 잘 소화해도 수지맞을 수 있어. **AF**



의료방사선의 이해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울진·고리 원전 정지 등의 사고로 인해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류최악의 사고라 불리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처럼 한국도 더 이상 방사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의료분야에서도 방사선이 쓰인다는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X-ray 및 CT 촬영이 대표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구입니다. 방사선을 이용한 이 검사들은 현재 공군에서도 많은 장병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예전과 비교해 이용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런 연유로 이번 달 <Health Diary>에서는 공군식구들에게 '의료용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실제'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방사선의 종류

방사선은 크게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으로 나뉩니다. 자연 중에, 공기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있는 음식물에도 방사성 물질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방사선과 접촉하고 있죠. 이렇게 자연 중에 존재하는 방사선을 자연방사선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이외에 치료, 전력발전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선 물질을 인공방사선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물질로는 X-rays(엑스선)이 있습니다. 인공방사선은 TV, 형광등, 컴퓨터 등 전자제품 및 각종 산업기계에서 소량 발생합니다. 반면 X-ray 및 CT장비 등 의료기구에서 나오는 인공방사선의 경우, 그 양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흡이나, 공기, 음식물, 그리고 우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연방사선량은 대량 2.4 ~ 3.0mV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면에서 30m씩 위로 올라갈 때마다 연간 0.01mSv(밀리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을 더 받게 되는데, 높은 산자락에 사는 주민이나 높은 하늘에서 근무하는 항공근무자들은 우주방사선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영향

방사선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인체 전달시 유전자에 악영향을 줍니다. 방사선이 유전자에 닿으면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 버리는 작용이 일어나고, 이를 유전자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 손상은 노출된 방사선 양이 적은 경우에는 비교적 단시간에 복구되나, 방사선 양이 많고 유전자 손상이 동시에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모든 손상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을뿐더러, 그 중 일부가 잘못 복구될 수 있습니다. 잘못 복구된 유전자는 신체 세포를 공격하거나, 기능에 변화를 불러옵니다. 한 마디로 돌연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암 유전자가 생기거나 암 억제 유전자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및 히로시마 원폭사고의 생존자들은 혈액암이 더 많이 발생했으며, 그 외 갑상선, 유방을 포함한 내분비계 및 소화기계에서 다양한 암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원폭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암 발생은 100mSv 이상에서 높았습니다. 100mSv의 피폭량은 매우 높은 수치로, 특수한 상황 아니면 보통사람이 한 번에 100mSv 이상의 방사선에 피폭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의료방사선 노출

X-ray 및 CT 검사 등의 방사선 장비의 사용증가로 의료용 방사선의 피폭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과거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의 비율이 85:15이던 것이 급격한 방사선 의료장비의 사용증가로 거의 1:1 수준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보건청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 1인당 의료용 방사선 피폭은 0.53mSv에서 2006년 3.0mSv로 약 6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내에 보유한



①

CT 장비수를 고려할 때 OECD 국가 중 3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역학연구 결과, 100mSv 이하의 방사선 피폭에서 직접적인 암 발생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량의 피폭이라 할지라도 체내 축적되는 누적량을 고려하면 이는 향후 위험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높은 자연방사선 수치를 보이는 환경에 장시간 있거나, 의료용 방사선에 너무 자주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임신예정 중인 여성이나, 단기간 내에 방사선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검사 전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끝맺으며

아직 소량의 방사선 피폭위험성은 정확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산업화된 오늘날 우리 모두 예전보다 훨씬 높은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어 있음은 명확합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의료방사선검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도구로 인식되면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군 병원을 찾는 공군인들은 의료방사선 피폭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추운 겨울 공군장병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이번 달 '의료방사선의 이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AF**



②



③



④



⑤

- ① 방사선 노출 위험성을 경고하는 로고
- ② ③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대피소에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는 모습
- ④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방사선 피폭환자를 무균실에서 치료하는 모습
- ⑤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태어난 기생송아지



여러분에게 2월의 의미는?

〈책마을〉 가족 여러분!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黑龍)의 해라며 떠들썩하게 맞이했던 2012년의 첫 번째 달을 보내고 어느새 두 번째 달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2월은 어느 달에 비해 하루 이틀이 적은 탓에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금세 지나가 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2월에 설 명절이 있더라도 하면 우리 민족의 한 해는 설날부터 시작된다고 너스레를 떨며 그간의 흐지부지했던 계획들을 다시 시작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 있어 학창시절의 2월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을 기다리며 지난 학년을 마무리하는 끝의 의미였다면, 지금의 2월은 새해를 맞이하며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며 다시금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재출발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의 개인적인 목표라면 더욱 많은 책을 읽는 것과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게을리 해왔던 시(詩) 쓰기에 정진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월간 「공군」 2월호의 〈책마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책은 도끼다』(박웅현 저, 북하우스, 2011. 10)와 『철학카페에서 시 읽기』(김용규 저, 이강훈 그림, 웅진지식하우스, 2011. 11), 그리고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이병훈 저, 문학동네, 2012. 1)입니다.

먼저, 『책은 도끼다』는 작가의 이름보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잘 자! 내 꿈 꿔!', '커피 앤 도넛', '생활의 중심-현대생활백서' 등의 광고카피로 더욱 유명한 광고인 박웅현 씨의 저서입니다. 제목과 저자의 서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책이 우리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잠에서 깨워주고 우리 안에 있는 꿈꿨던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한 권, 한 권, 그리고 한 줄, 한 줄을 곱씹어가며 찬찬히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읽기의 방법입니다.

『철학카페에서 시 읽기』는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왔던 분해와 분석을 통한 시 읽기가 아닌 철학이론을 바탕으로 시를 읽어봄으로써 삶 속의 시 읽기, 생각하는 시 읽기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故) 김춘수 시인께서도 고등학교 문학 시험에 출제된 본인의 작품인 '꽃'이라는 시에 대한 문제를 풀고 70점을 맞았다는 일화가 있듯이 우리는 그동안 입시라는 틀에 갇혀 시를 주스처럼 쪼개고 갈아서 마셨다면, 이제는 과수원에서 따내어 먼지만 쓱 닦고 바로 먹는 생과일처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삶과 작품의 흔적을 따라 여행하듯이 그려낸 기행문인 동시에 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명성과 작품의 문학적 의미와는 달리 가난과 오랜 투옥 생활로 깊은 시련과 상처를 경험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을 그가 살았던 지역과 그가 써낸 작품들, 그리고 작품의 배경들을 중심으로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왜 지금까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은 2월을 맞이하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셨는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 말고라도 여러분 각자가 부여한 2월의 의미에 걸맞은 책을 한 권씩 찾아서 읽어보신다면 비록 어느 달보다 짧은 한 달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값진 한 달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AF**

2012 February

Vol.404

P
O
S
T
C
A
R
D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2012 February

Vol.404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2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2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2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2월 29일까지

1. 영국 공군창설 및 항공력사상 발전에 기여하고, 영국 초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은 누구인가?
2. 이미 개봉한 영화의 등장인물을 독립적인 주인공으로 내세워 새롭게 만든 영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3.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가 사랑했던 트로이의 전사는 누구인가?

12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안면홍조 2. 슈거 레이 레너드 3. 라보엠

퀴즈 당첨자 충북 청원군 **김문준** ● 서울 서초구 **차명제** ● 대전 서 구 **박대진**
충북 충주시 **박윤수** ● 부산 금정구 **우주옥** ● 전북 익산시 **김정순**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35 / 042-552-6935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좋은 힘

